



서울大同窓會報

총동창회 지표 : 참여·협력·영광

<http://www.snu.or.kr>

2003년 10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307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발행인 林光洙 / 편집인 孫一振 / 편집주간 許 瑄 /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 FAX: 703-0755



지난 10월 14일 모교 개교 57주년 기념식에서 제13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李吉女(사진 좌)·洪羅堉(사진 우)가 선정됐다.

〈커버스토리 4~5면〉

두 분께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관약추추

문화 선진국들이 부러워하는 「나이내믹 코리아」는 생동하는 나라, 활기 넘치는 국민성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중심에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있는가 하면 당당한 「우먼파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한다.

서울대가 제13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여성동문 두 분만을 선정하는 것은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여성 「엘리트」의 부상이 미미한 것처럼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의 예를 보아도 12회까지 선정된 36명 중 여성동문은 불과 4명 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모교 재학생 가운데 여학생 비율이 학부 34.4%, 석·박사과정 포함이 40.8%인 것을 보면 동창회에서 여성동문들의 광범한 만한 진출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김별원과 경원대 총장으로 대변되는 李吉女총장은 두 번 설법이 필요 없는 성공신화의 주인공이다. 어린

시절 「의사 소꿉놀이」에서부터 문법적으로 의학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李總장은 평생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회에 공헌해온 의학계의 선구자이다. 또 인제양성이 곧 인술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의료·보건은 물론이고 교육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의대인이자 교육자이기도 하다. 특히 「새 생명 찾아주기 운동」을 통한 인술은 어려운 이들에게 새 삶에 대한 용기를 주어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우먼파워」 부상

洪羅堉호암미술관장은 국내의 고·현대미술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간선립과 기획전시를 도와 한국미술의 세계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삼성미술관과 독도미술관은 물론이고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기획된 대학미술관인 서울대 미술관을 구상해서 2005년에는 그 위용을 우리에게 보여 줄 것이

다. 또 어린아들의 참여정신과 창의성·실험정신을 개발하기 위해 개관한 삼성 어린이 박물관은 미래 세대들에게 문화에 대한 안목을 키워준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洪관장은 문화예술에 대한 아낌없는 후원과 문화계승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분으로 주목받고 있다.

물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했고 모교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이 이밖에 선정된 두 분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동문들은 하나의 중심점으로, 또 리더로서 눈부신 활약을 하며 축적된 역량을 발휘해서 모두가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의 일원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우리 사회는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주역으로 나설 서울대인들에게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또 요구하고 있다. 모두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모교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합류하기를 기대해본다.

(4)

만든 손석위원 金荷珠,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崔育林, 李炯均, 南仲九, 金鎭錫, 金好俊, 宋鎮赫, 丘月煥, 洪性萬, 朴明珍, 李成俊, 安炳燦, 李元龍, 安國正, 사람 李慶衡, 金維勳,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嚴基永, 朴時龍, 姜大錫, 朴聖姬 편집장 安興燾 편집기자 朴宰亨, 表智媛, 金南柱 광고부장 金千鶴

이리크 추가파병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짧은 네티즌에서부터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 한쪽에선 「명분 없는 대리전쟁에

정반대 총합반이 노릇을 할 수 없다」며 파병 반대의 목청을 높인다. 다른 한쪽에선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게 누구 덕이냐」며 미국의 파병 요구에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파병 반대론이나 찬성론이나 다 일리가 있다. 한쪽은 파병의 「失」을 배제하려는 입장이라면 다른 한쪽은 파병의 「得」을 구하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모두가 국가이익을 중시한 애국적 견지에서 파병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부가 여론을 수렴해 파병문제를 결정하겠다고 이라크에 조사단을 파견한 것도 적절한 처사로 여겨진다.

문제는 현실이다. 노무현 정부는 「전략적 선택」을 말하지만 우리에게 과연 선택권이 있는지 따져볼 일이다. 미국의 파병 요구를 우리가 무 자르듯 잘라버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답은 「그렇지 않다」다. 적어도 한국에 3만8천여 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는 한 「파병 거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일 것이다. 미국은 6.25 참전으로 이

땅에서 수만 명의 젊은이가 산화하고, 그 후 50여 년 간 엄청난 돈을 들여 한국을 지켜왔다.

그럼 미국이 「이리크 문제」로 어렵게 됐는데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국방대학교

것을 거부한다면 동맹국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반미시위로 감정이 잔뜩 상해 미2사단을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나오자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안보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가. 부록문제로 루디스가 국가 신용등급을 한 두 단계만 내려도 경제가 휘청거리는 나라가 한국이다.

서울포계도 한국은 아직 미국의 파병 요구를 거부할 힘이 없다. 거부할 명분도 약하다. 그제 오늘날 한미관계에서 한국의 현주소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파병문제는 현실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조금만 생각하면 결론이 뻔히 나오는 문제를 놓고 국론분열이나 소모적 정쟁을 격화시키는 건 어리석은 것이다. 파병 반대를 죄파의 상투적 소행으로 매도하거나 파병 찬성을 낙선운동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협박하는 건 옳지 않다.

파병 논의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파병의 적정 규모라든가, 파병 지역, 비용문제 등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논의가 바람직하다. 그러자면 보수파권 진보파권 국가이익 앞에 겸허할 줄 알아야 한다.

지난 3·1절 때처럼 적대적인 진미·반미집회가 동시에 열려 나라가 들로 쪼개지는 상황이 재현되지는

안된다.

(본보 논설위원)



金 好 俊
총남대 초빙교수

특 논 발 원

「법률의 한글화」 특별법안에 問題있다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法典을 만들어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정착시켜겠다는 명분으로 법제처는 全面的인 법률 한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취지만 본다면 무조건 환영할 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추진함에 있어 당국자는 우리 憲法과 民刑法 등 주요법률이 50년이 넘게 國漢混用의 방법을 써 왜곡을 수밖에 없었는지도 생각해

야 한다. 물론 법률에 한자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한 경우이거나 좋은 고유어와 우리 한자어가 있음에도 일본이나 중국의 한자어를 쓴 경우, 이것을 참고 좋은 우리말로 고치자는 것은 박수를 받을 일이다. 그러나 한자는 읽기 어렵고 한글은 읽기가 쉽다는 너무나 소박한 관점에서 법률의 한글화를 추진하는 것 이번 이로 인해 앞으로 엄청난 시행착오와 혼란이 야기될 것임을 미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법전 한글화를 한다 해도 법률용어로 이미 정착된 한자어를 다른 말로 바꾸기는 불가능하므로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漢字語의音を 한글로 표기하는 것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자어를 한글화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아닌 한자어는 듣거나 읽었을 때 뜻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 어휘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려 해도 한자어는 同音異義語가 많아 해당어휘를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

법률에서 요구하는 문장의 조건은 간결하면서도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률은 法典을 규정하는 문서이면서 서로 判例가 엮일 경우엔 是非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법률의 어휘나 문장이 詩나 小説 등 예술작품처럼 의미가 모호하거나 주관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으면 그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누구나 한글이 쉽다고는 하나 쓴 한글로 쓴 옛날 춘향전과 심청전을 읽고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이다. 그 춘향전과 심청전이 국한혼용이라면 세월이 가고 언어가 변해도 한자 뜻으로써 극단

적 타협은 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쉽게 읽는 것과 뜻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법제처는 혼용된 염려가 있는 어휘는 판호에 한자를 병기할 것이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률용어를 한글만 표기할 때 혼용이 안 될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또 법전의 한글화는 국민들이 한글 법전을 읽고 법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해한 듯만 착각에 빠지게 만들며 이로 인한 법률생활의 엄청난 혼란이 뒤따를 것이다.

법률 한글화의 目的은 한글專用이 아니므로 심각한 폐해까지 무릅쓰고 한글화 계획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당국은 먼저 원래의 목적에 맞춰서 한글화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등 신중하게 더 연구한 다음 어떤 세월이 흘러도 모든 국민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전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실 현 법전을 읽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한글전용 교육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한자능력이 급격하게 저하된 것이 원인인데, 이 문제를 교육이 아닌 한글화 특별법으로 해결해 보려는 것은 옳은 처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정책적인 면에서 보면, 동북아의 한자문화권시대와 연계한 한자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의 한자능력이 향상되게 함이 필요할 뿐 더러 이러한 방법이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열어가는데 근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욕심을 더 부리면 동북아시대를 앞두고 한자문화권의 다른 민족도 약간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전을 만드는 노력이 바람직해 보인다.



朴 千 緒
(60년 法大卒)
韓國語文會
심임이사

林회장 “내심 있는 신관 건립...모교 위상 높일 터” 본회·관악회 이사회 개최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9월 4일 신라호텔 영빈관 트라프롬에서 제144차 상임이사회 및 제단법인 관악회 제87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본회 許 麗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1987년에 건립된 동창회관이 그동안 모교 캠퍼스와 떨어진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하고 있어 모교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에 다소 불편한 점이 없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동창회 신관 건립에 대한 안을 토의하고자 개최됐다.

林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모교 캠퍼스에 동창회가 있어야 모교의 정체를 위해 보다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수 있다는 요청이 있었으나 신관 건립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사무처로 하여금 타당성 등 검토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토록 하면서 직접 사무처 직원과 함께 서감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동창회관 등을 답사하기도 했다”고 동창회 신관 건립의 필요성과 그동안의 추진 경과 등을 설명했다.

또한 “신관 부지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한 바 있는데, 교내에 짓는 안으로서 총장, 공관 옆 부지 또는 65동 교수회관 안이 있고, 교외에 짓는 안으로 동송동 안과 낙성대 후면 역삼역 안, 현 동창회관 재건용 땅이 있었다”며 “그러나 전문적 시각을 가진 동문들에게 의뢰한 결과 학교 밖에 짓는 것



은 모두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고 전했다.

즉 “총장공관 옆 부지는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얹혀 있어 이미 신관부지 대상에서 배제됐으며 동송동 안은 현 부속여중과 초등학교 이전이 이루어져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전 후 동창회가 그 땅을 쓸지 또는 임대해서 회관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모교 근처 역삼동의 땅값은 이미 평당 2천5백 내지 3천만원 선으로 올라 있고 7백~8백 평 이상의 부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며 “또 현 동창회관 중측은 이미 재개발이 완료되어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건립 가능하다고 보는 교내 교수회관 부지는 교내에서 제일 전망이 좋고 충분한 녹지와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모교의 희망사항인 컨벤션센터와 함께 독특한 예술적 가치가 있는 동창회관을 건립한다

면 서울의 명소로도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후 단찬과 함께 이어진 토론회에서 사대 辛東一회장은 “동창회관 부지로서 모교 교수회관 부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모교 측의 견해와 교수회관 건물을 비롯한 상세한 자료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모교 柳根地희실장은 “모교 내 동창회관 건립에 대해 鄭憲泰총장을 비롯한 모교 관계자들이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현재 모교에는 5백석 규모의 컨벤션센터 건립이 요구되고 있으나 컨벤션센터는 직접적인 교육 또는 연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이 안 된다”며 “동창회 신관에 컨벤션센터를 지어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요청을 동창회에 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컨벤션센터는 모교의 국제적인 이미지가

재고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林회장은 “동창회관을 단순히 크게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적정 규모로 건설하여 「과연 동창회관이다」 「내심 있고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신관이 모교 내에 건립된다면 그 소유권 문제와 함께 관리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 예산, 결손식유치 등을 통해 수익 사업을 벌여 신관 운영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대 李相赫회장은 「법대 1백주년 기념관의 모교 기증에 대한 예를 봐서도 신관이 모교 내에 지어질 경우 그 소유는 국가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도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했다.

본회 최英俊감사는 “모교 부지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모교 내에 신관을 짓게 되면 국가에 기부 체납을 해야하며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는 무조건적인 기부 체납이 있고 조건적인 기부 체납이 있다”며 “조건적인 기부 체납은 사용수익을 얻는 대신 그 유지 관리비용은 동창회에서 부담해야 하고 임대료 또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창회에서는 이미 건물 건물비로 국가에 이미 헌납했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동창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신관 건립과 관련해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동창회 신관 부지로서 모교 교수회관을 의결하고 이에 대한 이해와 참여 및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으며 신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신관은 적정 규모와 수준 높은 컨벤션

센터와 함께 건립하여 점차 운영에 남비적인 요소를 제거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고 신관건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인선에 대해서도 林회장에 모든 것을 위임했다.

이날 회의에는 본회 白文基고문을 비롯해 金在淳 명예회장, 林光洙회장, 孫一振 상임부회장, 徐廷和·尹勳煥·高炳佑·韓斗鎭·李吉女·朴熙伯·孔大權·郭永誠·朴漢實·尹世榮·李相禹·洪性大·卞柱仙 부회장, 崔英俊감사, 許麗사무총장, 관악회 明泰泰·鄭植圭·鄭八道·金鎭國이사, 악대동창회 李繼植회장, 법대동창회 李相赫회장, 미대동창회 李信子회장, 사대동창회 辛東一회장, 보대임동창회 具鎭會회장, 간호대동창회 俞敏子회장, 최고경영자과정(AMP)동창회 金正國회장, 朴世熙·金鎭淵·金仁圭·朴聖姬 운영위원, 인터비즈니스시스템(IBS) 禹仁性회장, 모교 柳根地희실장 등 36명이 참석하고 위임장을 47명이 제출하여 총 83명으로 성원이 이뤄졌다.

신관건립추진위

부위원장 4명 선임

한편 신관건립추진위원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임장을 겸임하게 된 본회 林光洙회장은 9월 25일자로 부위원장에 孫一振(51년 法大入·한국일보 상임고문·본회 상임부회장)·辛東一(58년 師大卒·성문동신산업 회장·사범대학 동창회장)·孔大權(60년 工大卒·대원테크시스템 사장·본회 부회장)·洪根天(63년 文理大卒·상산학회 이사장·관악회 상임이사) 등 4명을 선임했다.

또 앞으로 수시로 회합한 모임을 열어 신관건립위원회 구성 등 신관건립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의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李)

홈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

10월 19일 일요일, 동문 여러분을 모교로 초대합니다

서울대인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제25회 홈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가 오는 10월 19일 거행됩니다.

모교를 방문하여 그동안 잊고 지내던 선·후배·동기들과 재회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등산대회에서는 참가하신 동문가족에게 모교 음악대학 성악과 朴恩珠(68년 音大卒)교수의 CD(사진)를 기념품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모교의 품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일 시: 2003년 10월 19일 (일) 오전 9시

△집합장소: 모교 관악캠퍼스 대문중앙

△참가대상: 동문 및 동문가족

△참가비용: 없음

△제공품: 도시락, 식음료, 기념품 등

△경 품: 소형 승용차를 비롯한 다량의 선물 추첨

△문의전화: (02) 702-2233

IN-SOO, PARK



박은수 교수
정년퇴임기념 음반

미술작품

李仁實作



「旅情」, 종이에 수묵담채, 97×185cm, 1998.

〈작가약력〉

- ▲66년 모교 미술회 회원
- ▲70~98년 개인전 8회
- ▲75년 현대 미술 동양화 8만전
- ▲77년 현대 국전 수상작가 초대전
- ▲82년 한·일 현대미술전
- ▲85년 가라지 참림 초대전

- ▲86년 현대 한국미술의 아제의 오늘전
- ▲88년 올림피아드 현대 한국미술 초대전
- ▲90년 현대미술의 조형전
- ▲94년 94 대한민국 종교인 미술전
- ▲96년 서울대학교와 한국미술
- ▲97년 21세기 한국미술의 표상전
- ▲98년 한국 부채그림 문화예술포럼
- ▲현재 국영미술 평론가

제13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인터뷰

경원대 李吉女총장

“소외계층 위한 「사랑의 인술」 끝까지 펼치겠다”

모교는 지난 10월 14일 개교 57주년 기념식에서 제13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경원대 李吉女(57년 醫大卒)총장과 호암미술관 洪耀禧(67년 美大卒)관장을 선정했다. 본보는 2명의 여성동문을 미리 만나 수상소감 등을 들어보았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누군들 수상을 의식하고 일을 하겠습니까만 제에게 이처럼 여러 차례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의료와 교육을 통하여 봉사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 모교의 이름에 누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 다행입니다. 또 모교 은사님들의 은혜에 일부나마 보답해 드린 것 같아 어떤 상보다 더 값지고 영광스럽습니다.”

—현재 의료와 교육,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랑과 봉사의 철학을 펼쳐 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어떤 시절에 어머니와 할머니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알고 있는데,

“제 인생철학은 「조진 없이 사람을 실천하고, 원과 능력이 다할 때까지 타인을 위해 봉사하며, 나를 위해 배운 것을 베풀어 준 조국과 민족에 이바지함으로써 보답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 신념이자 우리 재단의 설립이념이지요. 그 밑바탕에는 저의 성장과 성취 과정에서 큰 가르침을 주신 어머니와 할머니의 제후가 깊이 배어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유교적 전통이 강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절제와 인내가 몸에 밴 분이었습니다. 동네 아낙들을 위해 글을 읽어 주시고, 짬을 내어 서울 등을 오가며 새로운 문물과 사상의 변화를 익혀서는 이웃들에게 전해 주실 정도로 깨어있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의료계에 첫 걸음을 내딛던 후에도 어머니는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아마 저는 어머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와 깊은 안목,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의지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또 어린 시절 저에게 무척이나 열렬했던 할머니는 「배움과 사는 삶」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예와 법도를 중요하게 여겼던 호랑이 할머니였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주저 없이 내 것을 나누어주는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배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됐지요.

—감사하는 진료법으로 큰 호응을 얻었고, 또 이 치료법을 후배 의사들에게 당부하고 계신데, 이는 어떤 것이지, “평소 저는 「눈으로 진료」를 강조합니다. 이는 환자의 입장에서 진료를 임하는 것을 말하죠. 겪고 있는 질병의 정체를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으며, 결과는 어떻게 예상되는지 등을 이해하기 쉽게 환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저는 환자를 진료할 때 그날 문진이나

기본적인 검사 혹은 진찰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두 팔로 환자를 감싸 안아 일으켜 볼로써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죠. 그러면 환자의 호흡, 맥박, 체온, 통증의 정도 등을 한꺼번에 체크할 수 있을 뿐더러 스킨십을 통해 감정까지 교류가 됩니다.”

—한 인터뷰 기사에서 「배우는 것은, 희망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잉태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배우는 삶을 통해 어떤 희망들이 잉태됐으며 그 희망들이 총장님의 삶에 어떤 지표가 됐는지요.

“봉사는 배움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즐거움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봉사를 「농사」에 비유합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성장껏 가꿔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 풍성한 열매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때 농



문입니다.”

—가천의대를 설립 운영하고 경원대 총장으로서는 후학 양성에 힘을 쏟고 계신데, 교육에 대한 꿈은 어디서 온 것인지,

“제가 서울의대를 졸업하던 시절에는 개인적인 희생과 보람만으로 의료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러나

“배움은 모두의 삶에 희망을 주는 행위”

부는 출린 땀의 보람을 느끼게 되죠. 농부에게 있어 열매는 보람이지 기쁨이요, 또 다음 해를 기약하게 하는 희망입니다.

봉사로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내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또 보람입니다. 배움은 주는 이 뿐만 아니라 받는 이에게도 큰 기쁨을 안겨줍니다. 배움은 그래서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의 삶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는 힘, 바로 희망을 주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봉사는 우리 재단의 설립이념인 「약에, 봉사·애국」 가운데 사랑과 함께 중요한 실천덕목으로 내 삶의 중심에 있었고, 이를 통해 나라사랑도 함께 실천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의료법인 김의료재단의 설립자로서 의료 혜택을 받으실 기회를 위해 양평과 철원지역에 병원을 개원하거나 인수해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두 병원이 쉽게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불사지탄’ 이념과 재단의 운영 사이에 갈등도 있었을 텐데,

“의료 취약지에서 병원을 경영하는 것은 당연히 모험이었고, 경영상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각오가 필요했죠. 그래서 병원 인수나 설립을 결정하는데 재단이 축복의 만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직 병원 설립을 고집한 것은 의료에서 소외된 계층과 지역에 「사랑의 인술」을 펴아준다는 의지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

오래지 않아 다양한 환자의 요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스승께서 가르쳐 준 대의의 길을 가야 한다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병원의 설립을 서둘렀고 전문의 양성을 병행했지요.

이 과정에서 느낀 것이 인력양성의 한 계단이었습니니다. 이미 다른 대학에서 기본이 다져진 의사들에 대한 「졸업후의 교육」만으로는 사회가 요구하는 참된 의사를 양성하기 어렵다고 판단, 그래서 가천의대를 설립했습니다. 의사를 첫 단 계부터 양성하는, 엘리트 교육의 장을 연 것입니다. 또 다방면에 필요한 지성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종합대학교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경원대학교를 은연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됐죠.”

—현재 의대동창회장을 맡고 계신데,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요,

“동창회의 기능이 회원 상호간의 친목 강화와 학술정보의 교류증진을 바탕으로 선후배 동창들의 학술연구활동 지원과 장학사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완공된 「합동화관」의 일부 수익사업을 충실히 집행, 동창회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학술연구재단의 목적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나라 최초로 유일한 의대 동창회인 합동화관을 가졌다는 자부심 아래, 이 회관이 동창회와 모교, 그리고 회원간의 기여협조관계 정립 등에서 하나의 모델로 자리매김되도록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모교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모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정부의 미진한 지원 등이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교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연구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연구와 연수를 위한 넉넉한 시간 공간 재정적 지원을 비롯해 교육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교육공간 및 부대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연의 개선만으로 서울대인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대로 된 인재를 육성하고 참의적인 리더십을 고양시키는데는 선결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보다 강한 여성으로 살고 싶다는 진취적인 성격을 가지셔서 그런지 앞으로의 활동가 더욱 급진적이시네요.

“국가와 민족이 베풀어준 배려나 혜택으로 제가 쌓아온 경험과 결과는 결국 우리 모두의 것일 겁니다. 제가 숨을 쉬는 동안 잠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벌여 놓은 일의 매듭을 지으며, 사랑과 봉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의료인으로서, 대학인으로서 신명을 총출력, 단장하는데 있어 남다른 구별은 무의미합니다. 물론 넓고 깊은 모성의 섬세함과 포근함으로 세상을 인간을 감싸도록 세 역함을 다한 것입니다. 여기에 장래를 바르게 조망하는 총명함이 없었더라면 급진적일지

미각 J.F. Kennedy 대통령의 위엄이 가운데 한바탕을 여기 안용하면서 이 질문에 답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무엇이든 혼자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시작하면 반드시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앞 자제가 우리들에게 교훈이자가 됩니까 되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 가는 우리 동문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려나.

“두드리는 차이에 묻는 열립니다. 우리 동문들은 누구를 것 없이 모두 명성하여 사리판단이 남다른입니다. 국가나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지요. 만일 여러분이 후배들의 길을 여는데 앞장서 준다면 동창 모두의 힘이 하나가 되어 어떠한 난관도 쉽게 풀릴 것이며, 결과적으로 모교와 모국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는 일이 될 것입니다.”

동창 여러분이 모교인 서울대학교로 인하여 유망해지기보다는 여러분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더욱 유명해지는 길을 함께 찾아 나서기를 당부합니다.”

李吉女는 서울 적십자병원 인턴, 美 Mary Immaculate Hospital 인턴, 美 Queen's Hospital-Cardiac Care 센터를 마치고 일본대학교 의학박사, 단국대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가천의원 이사장, (제)가천문화재단 이사장, 새생명 찾아주기운동본부 이사장, 경원일보 회장, 가천간재단 회장, 서울대학교 의대동창회장 등을 맡고 있다. 국민운동장 우공화장·육연장 수호, 대통령 표창(91, 96년), 문화체육부장관 표창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제13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인터뷰

洪羅喜호암미술관장

“대학이 미술문화 창달에 선도 역할을하기를...”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 훌륭한 동문 분들이 많이 계신데 부족한 제가 이렇게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어 몹시 바쁠 모르겠습니다.

동문의 이름을 걸고 사회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李吉女총장님과 같은 훌륭한 분과 함께 이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더할 나위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난파를 볼만큼하고 사회 곳곳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훌륭히 하고 계시는 동문 여러분과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1995년 호암미술관 관장으로 취임한 이래 현재 호암미술관은 국내 최대·최고 규모의 미술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 관장님의 철학과 기조는 무엇인지요.

“사이바남이었던 李秉喆 선대 회장님께서 “신념”과 “예정”을 갖고 지켜오셨던 호암미술관의 운영을 본격적으로 맡게 되면서 부단히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관장 취임 이후, 호암미술관을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미술관이 되도록 성장·발전시켜 나갔다는 일념으로 일에 열매였으며,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선상에서, 규모는 작지만 알차고 질 높은 전시를 개최하는 미술관을 만들어 보고자 2004년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 한남동 삼성미술관의 개관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전통문화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고미술에 관심이 많으셨던 사이바남이신故李秉喆회장님께서 미치신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요.

“전통문화에 대한 특별한 공부나 연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 것이 지니고 있는 무뎠음은 아름다움에 대해 깊은 매력과 애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복각구, 예 건축물, 전통식량, 도자기 등에서 볼 수 있는 비례나 구성, 장식과 색채 등에서 발견하는 우리 고유의 자연친화적 아름다움에는 매번 감탄을 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李秉喆 선대 회장님을 모시면서 전통문화와 예술품에 대한 그분의 높은 안목을 가까이서 접할 기회를 자주 갖다보니 그 분야에 대한 감성이 자연스럽게 개발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이 점에서 특히李秉喆 선대 회장님과과의 각별한 인연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나이가 들수록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와 같은 문제를 대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때마다 드는 생각은 우리가 가진 정신을 이어 가기 위한 한 가지 방편으로 전통에 뿌리를 두고 현대적 정서를 고려한 해석을 하여서 시대에 맞게 재창조된

문화적 유산을 후손에게 남기는 일이 얼마만큼 절실한 일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칫 “단절”될 수 있는 전통을 어떻게 후세에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의 고민이랄 수 있지요.

호암미술관의 전통 정원 “회원”을 개원한 이래라가 중요 사적인 발간, 복각구 展示 개최 등이 바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의 작은 노력들이라 보여질 수 있을 듯 합니다.

—호암미술관을 경영하면서 높은 안목을 가지고 우리 나라 미술계의 발전을 이끌어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술을 전공하게 된 동기와 어릴 적 꿈은 무엇이 있었지요.

“미술을 전공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미술품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집안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덕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 뒤늦게 직접 다룬다는 꿈이 있어 관심이 많았던 저의 성격과 함께 작용을 해 미래에 진학하게 됐지만, 실은 불문과에 진학하여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선배의 권유로 생각을 바꾸어 응용미술과를 택했지만,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만드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전공 공부를 계속 하다가 현재, 요즘은 대학 강단에 있거나 공예가 또는 디자이너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성한 활동을 하는 여성 CEO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업가의 아내로서, CEO의 역할을 겸하면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각각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신지요.

관장님의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견해와 사회 진출을 앞둔 여성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여성들이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해요.

이제는 가족을 위한 배려를 기본으로 간직하면서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해 나가는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이 요구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나가면서 풍부한 감성개발, 인성수양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들이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호암미술관 관장이라는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삼성李秉喆회장의 아내이자 1남3녀의 자녀를 두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 오셨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보는李秉喆회장은 어떤 분이신지.

“제가 호암미술관장직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은 얼마



스스로 내면의 깊이를 넓히도록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수양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의미지요.

—업무 시간외에 어떤 일상의 재충전을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간 나는 대로 국내 또는 해외의 여

러 미술관과 전시장을 방문하고, 콘서트나 공연들도 자주 찾아보려고 하고 있지요.

또한 국내외 문화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문화계 동향이나 조류를 읽을 수 있고 좋은 발판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되도록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요즘은 무엇보다 하루가 다르게 커 가는 손자들의 재주를 보며 큰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관장님을 비롯해 가족 가운데 동문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동생이신 중앙일보 洪鍾熙회장께서는 서울대총장직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 밖에 서울대 가족을 소개해 주시지요.

“중앙일보 洪鍾熙(72년 工大卒)회장을 포함한 네 명의 남동생, 洪鍾廉(75년 法大卒)법무부 검찰국장, 삼성 SDI 洪鍾茂(77년 社大卒)부사장, 보광그룹 洪鍾基(79년 社大卒)이사장과 장남인 삼성전자 李在煥(92년 人文大卒)상무가 모두 동문입니다.”

—한편 호암미술관 관장이라는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삼성李秉喆회장의 아내이자 1남3녀의 자녀를 두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 오셨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보는李秉喆회장은 어떤 분이신지.

“제가 호암미술관장직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결혼 초기에는 여느 부인과 마찬가지로, 사업가의 아내로서 남편의 건강을 챙기고 어머니로서 자녀들의 교육에 힘을 쏟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조직에 들어가 책임 있게 일을 해 보려고 권유를 해주었던 분이 다행히 저의 남편이었고,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곁에서 조언을 해 주시는 분도李회장이십니다. 남편이지만, 배울 점이 많은 분이랄라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지난 8월 30일 서울대학교 미술관 기공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의 대학교 미술관이 되는 셈인데요, 삼성문화재단에서 건물을 기증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 이는 모두 洪관장님의 노력과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삼성문화재단에서 모교인 서울대학교의 미술관 건립에 대한 노력과 애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진행한 일로, 제 노력보다는 삼성문화재단과 서울대의 미술관 건립 의지가 함께 만들어 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평소 국내의 대학 중 미술관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없다는 현실에 늘 안타까웠는데, 이와 같은 성과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이번 기회가 대학 미술관 건립의 촉매제 역할이 되기를 바라며, 대학이 미술문화 창달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교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것 같은데요, 후배들을 위한 지원을 해 오셨는지.

“그리고 보니, 졸업하고 나서 후배들과 특별한 자리에서 만남을 가진 기억이 많지 않네요. 하지만 미술관 운영을 하면서 많은 재능 있는 후배들의 모습을 접할 수 있었어요.

저는 평소 교육이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중요한 밑거름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과 학교 발전을 위한 일에 제가 도움 줄 수 있다면 미약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대인이 사회의 중심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으면 합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2004년에 개관 예정인 한남동 삼성미술관 건립을 잘 마무리해서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동문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정착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통문화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예술을 이해하고 즐기게 되었으면 하며, 외국인들에게도 우리 문화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동문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길 늘 저를 불러 닦아 드립니다.”

모교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한 洪관장은 현재 불교진흥을 위한 모교인 “不二會” 회장, 예술의 전당 후원회 부회장, 국립현대미술관 부회장,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 (사)남북어린이이웃공동체 이사 등을 겸하고 있다.

(表)

모교소식

농업생명과학대학

지하 2층·지상 9층 신축건물 준공



농업생명과학대학(학장 李茂堧)은 지난 9월 23일 모교 관악캠퍼스 농생대 1층 로비라운지에서 본교 林光洙회장, 許堧우총장, 尹勳煥농생대총장회장, 모교 朴春植·趙完浩 전임총장, 鄭憲燮총장, 鄭明熙부총장, 金東泰·許信行 前총장부 장관, 朴在淵 前부산대 총장, 金榮旭 농촌진흥청장을 비롯한 동문과 내외인사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물 준공식을 가졌다.

모교 鄭憲燮총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관악캠퍼스로의 이전을 통해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타학문 분야와 연계함으로써 교육 및 공동연구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산전국의 농수산물 개발 일익에 맞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수산물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

당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본교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관악캠퍼스와 멀리 떨어져 있어 본교의 훌륭한 교육 및 연구지원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어 연구기능 수행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앞으로는 인근 기초학문이나 첨단과학분야 등과 활발한 교류가 가능해진다』며 『앞으로 연구 분위기가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생명과학의 연구 추세가 생선위주의 농업에서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종합과학으로 변모하고 있어 다른 인접 학문과의 협력이 학기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농생대 건물 신축을 축하하는 부대 행사로 전야제, 기념강연, 사진전 등이 개최됐다.

전날 열린 전야제에는 오케스트라 연주, 서울대 합창단, 샌드패블스 공연 등이 펼쳐졌으며, 준공식 이후 개최된 기념 강연은 농업생명과학의 과거·현재·미래, 수자원 기술 개발의 현황과 전망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또 지난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사진전에서는 농생대 97년 역사에 관한 각종 사진들이 전시됐다.

새로 준공된 농생대 건물은 연면적 1만4천4백83평(4만7천796㎡)의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앞으로 2004년 8월까지 1만7천3백80평(5만7천359㎡) 규모로 이전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수원캠퍼스 부지는 농장과 수목원, 목장 등 현장교육의 중심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역사연구소」 개소식 가져

모교 역사연구소(소장 李成圭)가 지난 9월 17일 개소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 연구소는 역사연구에 학제적 협력과 거시적 접근방법을 강조하는 최근 국내외 역사학계의 새로운 경향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됐다. 역사학 전문 연구기관이 대학에 부설된 것은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3월 학과체제를 뛰어넘는 역사학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한 모교 교수 46명이 대학본부에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설립을 신청하게 됐고 마침내 지난

3월 29일 인문대 동양사학과와 李成圭(72년 文理大卒)교수가 초대 소장으로 임명됐다.

앞으로 역사연구소는 기존 학과체제로 인해 역사 연구의 관심과 영역이 협소화돼 가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학식의 학술활동을 통해 토론과 대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학제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사 및 비교사 연구를 촉진하고 나아가 역사 교육 문제의 개선에 노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역사학 분야의 지적 공동체의 구축과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대 朴正海동문

韓·佛 국제공동박사 첫 수혜

모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朴正海(96년 工大卒)동문(사진)이 지난 8월 28일 모교와 프랑스 국립채광학교(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Mines de Saint-Etienne: ENSM, SE)에서 동시에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공동박사학위 제도는 서로 다른 국가의 두 대학이 각각의 학위 수여 규정을 동시에 만족시킨 학생에게 양 기관이 공동으로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학간 연구가 중시되는 세계적인 연구동향과 부합하여 유럽과 미국에서는 널리 시행되고 있다.

특히 2개 국가와 기관에서 동시에 학위를 취득한 학생은 진로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 이번 공동박사학위 수여는

2000년 5월 제정된 韓·佛 양기관 사이의 연구인 교류 및 공동학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것이다. 박동문은 2000년 2월부터 3년 동안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매년 6개월씩 양국의 연구기관에서 「복합재료 구조물의 구조 설계와 성형 공정의 동시 최적화」를 주제로 프랑스 ENSM, SE의 Alain VAUTRIN 교수와 모교 기계항공공학부 李應仁(76년 工大卒)교수의 지도 아래 공동박사학위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李)

응용화학부 玄澤煥교수

나노탄소 新소재 공동개발

모교 자연과학대학 응용화학부 玄澤煥(87년 自然大卒)교수가 광주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成永恩(86년 工大卒)교수와 공동으로 연립전지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나노소재를 개발했다고 지난 9월 23일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독일화학회지(Angewandte Chemie)에 게재됐으며 미국에 특허 출원됐다. 연립전지는 전기자동차 등의 차세대 동력원인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2차 전지를 대체할 차세대 전지로서, 탄소 정부의 10대 차세대 성장산업의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 개발된 새로운 탄소나노 코일은 표면적이 넓고 결정성이 뛰어나 백금 촉매 입자들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고 玄교수팀은 밝혔다.

玄교수는 지난해 제5회 젊은 과학자상과 이달의 과학기술자

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부터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의 단장으로 일하고 있다.

금빛내리 교수팀

「스몰RNA」 생성효소 발견

모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金빛내리(92년 自然大卒)교수팀은 지난 8월 25일 인간 등 고등동물의 유전자 발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스몰(small) RNA」의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金교수팀은 이번 연구에서 마이크로 RNA가 세포 핵 안에서 전사(轉寫)된 뒤 「드로샤(drosha)」라는 효소에 의해 2차 변형을 거쳐 세포질로 이동한 다음 완성된 형태로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관한 연구논문은 금교수팀 연구실의 연구생 이윤래(01년 自然大·박사과정 1년차)

동문이 제1저자로 작성돼 저명 과학저널 네이처지에 실렸다.

弘承燾 교수팀

「네이처」誌에 논문실러

모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화학부 弘承燾(90년 自然大卒)교수는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하여 현재보다 집적도를 1만배 이상 높일 수 있는 미래형 분자·양자소자의 대량생산 방법을 개발해 영국의 저명 저널인 네이처지 9월 4일자에 논문을 출간했다.

弘교수는 집적도를 1만배 이상 키우고, 광소자, 양자소자로 쓰일 수 있는 탄소나노튜브 소자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 앞으로 이 개념을 특허화 하고 향후 나노튜브 소자의 원천 기술 중 하나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세계적인 유명현 IBM 나노연구소와 나노기술분야 노벨상을 배출한 미국 라이스대학 연구소에서도 10여년 동안의 연구를 거듭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한 연구분야다.

2004년 DIARY를 발송에 드립니다



본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포켓용 DIARY」를 제작해 보내드립니다.

이번 DIARY는 동문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 Soft Cover를 사용함으로써 부피와 크기를 최대한 줄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동경회 DIARY는 모교 발전과 동경회의 활성화를 위해 경쟁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주신 동문께 11월 초순부터 우송해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2004년 甲申年の 설계와 구상을 새롭게 변신한 동경회 DIARY에 기재하여 보람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동경회를 사랑해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정년 교수 프로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교에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위해 한 평생을 바친 교수 18명이 지난 8월 31일 정년을 맞이했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의 삶과 그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분들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李根源교수 국어국문학

61년 文理大學.
모교 대학원에서 문학석사,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 부교수로 임용 후 고전문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한국고전문화학회, 국학연구진흥위원회 위원, 모교 한국문화연구소장, 규장각 관장 등을 역임했다.



黃承圭교수 영어영문학

61년 文理大學.
모교 대학원에서 문학석사 학위, 영에단버러대 대학원에서 Diploma를 받았다.
68년 모교 전임강사로 임용 후 영미문화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모교 영연방연구소장·대학신문사 주간 등을 역임했다.



金水恩교수 국사학

62년 文理大學.
모교 대학원에서 문학석사, 문학박사 학위를 마쳤다.
70년 모교 전임강사로 임용 후 조선시대 및 근대사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한국사연구회,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역임했다.



鄭顯建교수 지구환경과학

65년 師大.
모교 대학원에서 이학석사, 미술사 도미니언대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마쳤다.
70년 모교 전임강사로 임용 후 물리 해양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한국해양학회, 모교 해양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李承俊교수 응용화학

61년 工大.
모교 대학원에서 공학석사, 미국 워싱턴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71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후 유변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모교 전자계산소장·공대학장·총장 등을 역임했다.



鄭基亨교수 원자핵공학

62년 文理大學.
모교 대학원에서 이학석사, 공학박사 학위를 마쳤다.
70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후 플라즈마 공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한국가속기 및 플라즈마 연구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南承恩교수 생물자원공학

60년 農大.
모교 대학원에서 농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65년 모교 전임강사로 임용 후 삼나무 분얼기 비탄현상 전염병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한국삼학회 회원이자 회장, 모교 농대 전염병연구과장 등을 역임했다.



安承恩교수 디자인학

63년 美大.
이탈리아 까리나 공예학교와 플로렌스 미술학교를 수석했다.
69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후 금속공예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한국공예기협회 이사장, 서울공예협회 회장, 한국공예기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李維祥교수 동양화

63년 美大.
동국대 대학원에서 문학석사,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79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후 동양화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한국목화연구소장, 문화재관리국 박물관 본과 전문위원, 모교 박물관장·미술관장 등을 역임했다.



鄭承恩교수 동양화

60년 美大.
경희대 교육대학원에서 문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83년 모교 전임강사로 임용 후 동양화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외교통상부 미술사문화위원 등을 역임했다.



孫鳳麟교수 사회교육

61년 文理大學.
네덜란드 자유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83년 모교 조교수로 부임 후 사회철학 및 시민윤리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한국근대학회, 경실련 공동대표, 세계발달연합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鄭基台교수 체육교육

60년 師大.
美조지워싱턴대에서 이학석사, 오리곤대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68년 모교 전임강사로 임용 후 체육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서울올림픽학술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朴鳳基교수 악학

63년 藥大.
모교 대학원에서 약학석사, 日 오사카대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74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후 약분분해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한국분해학회, 대한약학회, 국제치과연구학회(IMDR) 한국지부 회장, 모교 치대 학생회장 등을 역임했다.



朴恩泰교수 성악

68년 音大.
美뉴욕 맨해튼 음대 대학원을 수석했다.
83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 후 우리 민요 발굴, 발전에 대한 연구와 강의 및 수련 회의 음악회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모교 음대 학생담당장보·성악과 학과장 등을 역임했다.



玄海恩교수 기악

57년 音大.
美신시내티 음대를 졸업하고 필라델피아 커티스 음악학교에서 음악석사 학위를 받았다.
69년 모교 전임강사로 임용 후 독주회와 실내악 연주 등 폭넓은 연주활동과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모교 음대 기악과장 등을 역임했다.



金哲基교수 치의학

61년 齒大.
모교 대학원에서 치의학석사,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69년 모교 전임강사로 임용 후 치과생체재료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대한치과기체학회, 국제치과연구학회(IADR) 한국지부 회장, 모교 치대 학생회장 등을 역임했다.



林昌潤교수 치의학

61년 齒大.
모교 대학원에서 치의학석사,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67년 모교 전임강사로 임용 후 구강병리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대한구강병리학회, 국제치과연구학회 한국지부 회장, 공직치과의사 회장 등을 역임했다.



崔海然교수 치의학

61년 齒大.
모교 대학원에서 치의학석사, 의학박사 학위를 마쳤다.
70년 모교 전임강사로 임용 후 치주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해왔다. 대한치주과학회, 대통령 치과추진회, 모교 치주과건설 주임교수·치과대학병원장을 역임했다.

전임 李龍洛재미동창회장

林光洙회장 등에게 감사패 전달



李龍洛동문이 林光洙(사진 좌)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지난 9월 23일 한국언론재단 19층 목련

실에서 재미동창회 전임 李龍洛회장, 뉴욕지부동창회 전임 李典九회장을 비롯해 본회 金在淳 명예회장, 韓斗鎭·孔大植부회장, 관악회 明泰鉉이사, 朴美俊 감사, 許 歷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李龍洛회장은 자신의 재미동창회 회장 재임 기간동안 동창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본회 金在淳명예회장, 林光洙회장, 李世襄명예사무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간호대학

제1회 「기 이사의 날」 행사 개최



간호대학동창회(회장 俞澈子)는 지난 9월 18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신관에서 모교 洪京子학장, 徐文子·韓景子·朴永敏·尹良淑교수, 朴良子·李正熙·金彩淑부회장, 朴賢媛상임이사, 李금다·金英美기획이사, 申孝然·최윤경 회계이사, 趙世敬홍보이사, 李英喜서기이사, 金維顯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기 이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李孝行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俞澈子회장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李금다 기획이사가 동창회의 최근 근황을 소개했다.

이어 참석자들이 이어 참석자들이 모부터 그동안의 기별 모인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경청했으며, 보고를 하는 동안 퀴즈 풀이와 게임 등을 선보였다. 특히 이날 수고를 아끼지 않은 각 기별 대표에게 李금다 기획이사가 준비한 협찬품을 선물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통해 오는 10월 11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앞 잔디밭에서 개최되는 아우회에서 베품자상을 운영하기로 했다.

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오는 10월 18일 오후 3시 모교 관악캠퍼스 수의과대학 합동강의실에서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고, 행사 예산안 책정 및 경품·기념품·협찬품 지급 등을 논의했다. 또 모교 방문의 날 연합금 중 5백만원을 장학재단 기금 조성을 위해 사용하기로 의결했다.

동창회는 「지랄스러운 수의대인」 후보 추천을 위한 조직 위원회를 결성, 위원장에 李희장, 부위원장에 鄭英彩이사를 비롯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朴鍾鳴원장, 모교 金壽中교수(주)동방 李角模사장, 趙休賢 동물병원장 등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교육대학원

새 회장에 咸漢濤문



교육대학원동창회(회장 李成九)는 지난 9월 20일 「대림점」 식당에서 200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咸漢濤(72년 후·한나라) 김원 원주지부장 위원장)등문(사진)을 선출했으며, 부회장에 孔麗英(66년 후·前동덕여자 대학원장)등문을 선임했다.

보건학박사 동우회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가져



보건학박사 동우회(회장 朴明潤)는 지난 9월 26일 모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4층 강당에서 보내원동창회 具聖會회장, 모교 白南國보전대학원장, 한양대 高應麟명예교수 등 동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공중보건과 보건학교육」을 주제로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21세기 공중보건학과 교육」, 「보건대학원 박사교육의 현실과 개선방

안」,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바라는 보건학박사」라는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으며, 美 캠퍼스카운

터 曹定鉉(66년 후)보전교장, 대구한의대 南錫基(64년 후)교수, 보건복지부 吳大奎(6기 RPHPM)건강증진국장이 차례로 발표에 나섰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동우회를 빛낸 인물로 鄭文植(59년 文理大 후·모교 명예교수)전임회장과 卞廷煥(85년 후)등문을 선정해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국내 보건학 분야 발전에 기여한 曩錫緒(89년 후)등문에게 특별 감사패를 전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전임 학장에게 공로패 수여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尹勳煥)는 지난 9월 3일 선릉동 소재 상제리제 폐쇄식당에

서 모교 전임학장 공로패 증정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尹勳煥장은 모교를 위해 헌신한 金浩奎(64년 후·모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柳寬熙(67년 후·모교 생물자원과학부 교수·사친左)·李敦求(69년 후·모교 산림자원학과 교수)전임 학장에게 공로패와 함께 축하인사를 전했다. (表)

수의과대학

10월 18일 모교 방문의 날 행사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佑宰)는 지난 9월 18일 독산동 소재 로얄뷔페에서 모교 金壽中·

劉漢相·趙明行교수, 李角模부회장, 장학재단 鄭英彩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회

만화

李元觀

空大時代 만들지는 않고 고치기만 하겠다고?

제6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공고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제6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 상 부 문	
참여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력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광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 부문: 동창회 지표인 「참여」·「협력」·「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 1) 접수마감: 2004년 1월 31일
 - 2) 접 수 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702-2233·팩스: 703-0755)
4. 시상 시기: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2004년 3월 19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林 光 洙·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 一 根

법과대학

법과대학 동창회

1895년 「법관양성소」로부터 유래


 뿌리를 찾아서

1957년 경성법전·경성제대 등 통합

글 : 安京煥(70년 法大卒) 모교 법대 학장

글 : 金福謙(58년 法大卒) 서울법대 백년사 삼임관학원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은 그동안 법조계는 물론 나라 전체의 공·사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인재들을 배출함으로써 법치주의를 토대로 한 민주사회 건설에 건전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법과대학의 연원은 구한말 조선정부가 「裁判所構成法」을 제정하여 1895년 최초의 국립법학교육기관인 법관양성소를 세워 제1회 졸업생 47명을 배출했으며, 1908년



모교 南山법학도서관

12월에 제6회 졸업생을 배출한 뒤 일제강점기 후 1911년에는 경성전문학교로 개명했다. 1923년에는 경성법학전문학교로 개명, 개편되어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존속했다.

이와 별도로

1924년에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은 1926년 법문학부 법학과와 본과학생을 모집해 1929년 10월의 한국인 총학생을 배출하면서 중심적인 지적기관이 되었다. 해방 후 1945년 8월, 미군정 법령 제102호에 의해 경성법학전문학교와 경성제국대학이 폐지되고 새로 국립서울대가 창설됨에 따라 이 두 학교의 법과가 통합되어 오늘날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발전적 통합을 이루었다.

이후 법과대학은 6·25동란의 발발로 인해 일시 강의가 중단되는 등 시련을 겪었지만 휴전 이후 미국과 독일 등에서 유학한 교수진들에 의해 서양법학이론을 직접적으로 수용하며 발전기를 맞았다. 특히 1961년 4월에 비교법 연구소가 창설되어 체계적인 법학연구의 계기가 마련됐다. 1966년 9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도 이름이 바뀌면서 오늘날까지 중

합적인 법학 연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1962년 당시의 체계 없이 실시되고 있던 사법관사보의 교육을 법학교육과 직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법대학원(오늘날 사법연수원의 전신)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도 했다.

1975년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유산체제 등 압축한 시기에도 발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됐다. 1983년에 15층 법학관 건물로 이전했으며, 제18대 법대

동창회장을 지낸 최 金澤濤(52년 卒) 동문의 기부금으로 국내 최초의 법학전문도서관인 국산법학도서관이 건립되고, 1992년에는 교수연구

구동(17층)이 건립됐다.

1995년에는 근대 사법 1백주년이 되는 해이면서 법관양성소의 개교를 기산점으로 하여 1세기를 맞는 뜻깊은 해였다.

이에 법대동창회와 동문들의 성원에 힘입어 「近代法學教育 100周年 紀念館」을 1996년 준공했다. 그 앞에는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대형 「正義의 鐘」도 건립됐다.

최근 연구동 증축 및 강의동 개편 공사를 통해 교육 시설과 연구 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타고출신 교수들 채용 하는 등 교수진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지적구성의 다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사과정과 대학원에 장여우, 능이춘출신, 외국의 학생 등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수용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들 양성에 우리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법과대학 동창회는 모교 법대의 전신인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그리고 해방 후의 법대동창회가 통합하여 1957년 11월 2일 창립총회가 열렸다.

법대동창회 회원은 현재 1만4천8백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법조계를 비롯해 입법, 행정, 교육, 언론, 기업, 금융 등 각계각층에서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해 법대인의 뛰어난 역할을 발휘하고 동창회와 교교의 위상제고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제도의 개선, 재정, 안정 등을 기해가면서 동문들의 성의와 정의를 끊임없이 모으고 있다.

무엇 보다도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동창회는 매년 1월 신년인사 회, 5월에는 정기총회 및 전제이사회를

개최하고, 특히 정기총회에서 당해 연도에 「지랑스러운 서울법대」으로 선정된 동문을 贈典하는데, 1993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11회에 걸쳐 36명의 동문을 현상했다.

이밖에 동창회장의 자문회의체인 동창회 운영위원회를 월별로 개최하고, 사인이 있을 때마다 서울법대 백년사 편찬위원회, 장학회 이사회, 회기별 동창회 회장단 회의, 봄·가을로 개최되는 바둑동호회 회장 대소 모임을 수시로 열어 동창회 발전 및 회원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1976년 4월 창간한 「낙산회보」를 계간으로 발행해 동창회와 모교의

소식을 동문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는 물론 동문들의 인사이동, 경조사 그리고 기고문 등을 게재하여 동문들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있다.

1969년 8월 문교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 南山法學會」는 설립 당시 8백만원에서 현재(2003년 9월) 18억4천여 만원의 기본재산을 적립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장

학생 3천2백97명에게 13억2천2백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후배들의 면학의욕을 북돋우고 우리 나라의 동량자재를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법대동창회회는 창립이 李漢東·玄勝龍교문, 李相赫회장, 李大淳교문, 모교 법대 安京煥학장)

재학생들의 학술연구, 학생활동도 지원해 왔으며 모교가 1973년 동승중에서 관악캠퍼스로 이

전한 후 교육·연구시설의 미비로 어려움을 겪자 1983년

南山법학도서관 건립 기증, 1993년 법학연구동 시설지원, 1996년 근대법학교육 1백주년 기념관을 건립 기증하는 등 모교의 법학연구 및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위해 20여 년 동안 꾸준히 노력했다.

지난 5월 5일 임한 李相赫(58년 卒·변호사)동창회장은 한국 최고의 법학교육기관인 서울법대 백년사 편찬 「서울法大 百年史」를 재일 중 발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 중대환 전환기에 선 모교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과 관련해 모교 鄭雲燦총장 등을 비롯한 각계 동문과 유익자를 만나면서 각종 지원을 당부하고 있다.



2003년 정기총회(좌로부터 申光休씨(洪 雲龍은 유족), 회는 창립이 李漢東·玄勝龍교문, 李相赫회장, 李大淳교문, 모교 법대 安京煥학장)

법대 백년사 발간·로스를 발간 구상

■ 연 혁

- 1895년 법관양성소 개설
- 1946년 8월 미군정 법령 제102호에 의해 국립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설치
- 1950년 6월 6·25 동란으로 대학운영이 중단되었으나 부산 고교사에서 연합강의 형식으로 강의 재개, 1953년 휴전 후 서울로 복귀
- 1959년 4월 법과대학 부설 행정대학원 설립
- 1961년 4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설 연구기관 「비교법연구소」 발족
- 1962년 2월 법과대학 사법대학원 개원(1970년 12월 14기생 배출 후 사법연수원으로 대체)
- 1964년 3월 「비교법연구소」가 「한국법학연구소」로 개칭됨
- 1966년 9월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거, 「한국법학연구소」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로 승격
- 1975년 3월 서울대학교 종합화 계획에 의해 관악캠퍼스로 이전(법대 10층 위치)
- 1983년 9월 15층 현재의 법학관 건물로 이전
- 1983년 12월 국산법학도서관 개관
- 1996년 12월 근대법학교육 1백주년 기념관 준공
- 2003년 현재 17층 교수연구동 증축 공사 진행 중

■ 연 혁

- 1957년 11월 2일 3교합동(경성법전, 경성제대 법문학부 법학과, 서울대 법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동창회」 발족
- 1964년 3월 동창회지 「南山」 창간
- 1969년 8월 재단법인 「南山法學會」 설립
- 1976년 4월 동창회보 「南山會報」 창간
- 1983년 12월 서울법대에 「南山法學圖書館」 건립 기증
- 1987년 1월 서울法大百年史 자료집 제1집(광복전 50년) 발간
- 1989년 5월 서울法大百年史 자료집 제2집(1945~1987년) 발간
- 1993년 6월 제1회 「지랑스러운 서울법대」 贈典
- 1995년 5월 서울법대 개교 1백주년 기념행사 개최
- 1996년 12월 서울법대에 「近代法學教育 100周年 紀念館」 건립 기증, 1백주년 기념 「正義의 鐘」 헌기
- 2003년 1월 동창회 창립 이래 12번째 「동창회원 명부」 발간
- 2003년 5월 정기총회 및 전제이사회 개최(신임 동창회장에 李相赫동문 선출, 제11회 「지랑스러운 서울법대」 贈典)



동문기자의 취재수첩

「웰빙족」에 대한 복잡한 마음

얼마 전 강남구 신사동의 한 스파(spa)를 찾았다. 「주5일 근무제」로 달린 생활 양식을 취재하기 위해서다. 「스파」란 온천지로 유명한 벨기에의 작은 마을 이름에서 유래했다는데, 물에 몸을 담근 뒤 얼굴이나 몸에 마사지를 받는 건강치료법이다.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스파로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요가를 하며 마음을 가라앉힌 뒤, 아로마 향이 나는 초를 피워놓고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었다.

이른바 「웰빙(well being)족」이다. 웰빙의 사전적인 의미는 행복이나 안녕. 뉴욕에서 건너온 「웰빙족」이란 말은 부나 명예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다.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이들은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유기농 음식을, 고기보다는 야채를 즐겨 먹는다. 웰빙족 중에는 남자도 많아서, 스파 이용자가 가운데 30% 이상이 남성 직장인이다.

과중한 업무와 술에 취들어있지 않은 건강하고 유쾌한 사람들. 2년 전 우리 사회에 등장했던 「보보스(bobos)족」이 떠올랐다. 보보스라 하면, 부르주아(bourgeois)와 보헤미안(bohemian)의 합성어인데, 역대 연봉을 뽐내면서도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예술에 대한 간

각이 뛰어난 사람들을 일컫는단다.

웰빙족과 보보스족은 공통점이 많다. 화려한 외관보다 내적인 미를 중시한다. 문화행사를 즐겨 찾는 것은 물론이고, 주말이면 근교로 나가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시도한다. 말하자면, 속물끼 없는 여파랄까, 아니 차라리 여파의 완성이 라고 부르는 게 낫겠다.

건강하게 살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담배피지 않고 채식을 하며, 몸을 가꾸는 것은 좋은 일이다. 예술에 대한 세련된 취향을 기르고, 정치

의 취향에 한 줄부 사장이 나온다. 그는 동성애에 대한 세련된 취향도 갖고 있지 못하고, 연극을 즐기지도 않고, 그림이라곤 제대로 본 적도 없는 그야말로 지수성가형 꼴루다. 친구의 초대로 팔자에도 없는 미술전시장에 간 그는 촌스러운 취향으로 부시를 당하고서도 기뻐거리며 작품을 찬찬히 살펴본다. 「정치적으로 올바르」 세련된 예술인들이 온통 사교행위에만 정신을 쏟는 와중에도 말이다. 그 전시장에서 그림을 보는 이는 그 꼴루 사장밖에 없었다.

건강·세련된 삶에만 관심 많아

가와 재배에 대해 냉소적으로 꼬아대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 웰빙족을 취재하면서 내내 마음이 불편했던 건, 이들이 이용하는 스파 시설이 너무 우르르러있기 때문이었다. 한 번에 20~30만원을 호가하는 비용이 이들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과연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러가면서 이러한 삶을 택할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몇몇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평온은 찾게 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나.

작년에 개봉했던 프랑스 영화 「타인

도대체 누가 속물인가.

DKNY 정장에 프라다 신발을 신고 카페에 앉아 동성애를, 난민의 권리, 전두적인 환경 운동을 옹호하고, 남성 중심주의를, 가족모파를,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하지만 삶에 대한 치열한 고민 없이 쉽게 평온함과 교양을 얻은 이들이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을 얼마나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인지 많음이 가늠 않는다. 가난함과 부유함의 존재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가난한 자를 따뜻한 동정의 시선으로 그저 바라보는 너그러운 사람인 건 아니지. 이런 식의 건강함은



楊李暉(98년 人文大卒)
MEC 문화부 기자

심다. 마음이 복잡하다.

담배피지 않고, 채식을 하며 몸을 가꾸는 것은 좋은 일이다. 정말로. 그런데, 건강에 대한 관심, 세련된 삶에 대한 이토록 지대한 관심은 나를 불편하게 한다. 왜 그렇게 건강에만 관심이 많은가? 왜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에는 그토록 무관심한가? 자기 몸에 나쁜 것 들어가는 것에는 그토록 민감한 사람들이 사회적 삶의 부조리함에는 왜 그렇게 둔감한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아무런 할 낱에서 오손도손한 가정을 꾸리는 것만이 아닌 것이다. 「세련되었다」, 라는 것 또한 일개인의 취향이 보수적이지 않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게, 사람들이 보다 평등하고, 보다 자유롭고,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자연스럽게 보장되고, 마음껏 얘기하고, 마음껏 여행하고, 마음껏 잠자고... 그런 것이 아닐까. 너무 이상주의적이거나? 하지만 이런 것까지 모두 포기하기에 나는 아직 너무 젊다.



宋顯道(2002년 師大卒)
한국경제신문 생생경제팀 기자

유통 담당 기자들은 1년에 2번 마법에 걸린다. 추석과 설날이 바로 그 시기다. 할 일이 평소의 두세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자와 데스크 모두 건드리면 폭발하며 필름 민감해진다. 유통업체들이 어떤 명절 마케팅을 펼칠지 기대하는 것은 기본. 어떤 제품이 잘 나가는 상품판에 경향도 전도려줘야 한다. 명절용 상품과 관련된 물가 역시 유통기자의 몫이다.

그러나 유통기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실물경기의 흐름을 짚어주기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불경기의 골이 깊은 시기에선 경기가 모든 독자의 관심사가 되는 터라 취재 부담이 더 크다. 하지만 신체가 없는 경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매출 불황이 관측이 일반화돼 있는 배화여이나 할인점 자료를 그대로 받아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도리가 없다. 가능한 많은 현장을 돌면서

명절때 실물경기 취재 부담 커

실물자들의 말을 두루 들어봐야 한다.

물려 추측은 특히 경기를 가능하게 어려웠다. 업체들이 발표하는 매출 지표만 보면 경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업체마다 자료의 편차가 커 도무지 신뢰할 수 없었다. 심지어 추석 10일 전쯤 발표한 한 백화점의 추석 선물 상품 판매수가 보도자료를 지난해 추석보다 40%나 매출이 늘었다고 돼 있었다. 다른 채널에서 입수된 「매출 역성장」이란 정보와 맞지 않는 것은 물론이

파하기 위해 가능한 부문별로 경기를 나눠서 보려고 노력했다. 백화점과 할인점, 홈쇼핑, 대리점 등 주요 유통 채널별로 따로 낸 매출 자료들을 보여 주면 비교적 오차가 적은 것이라는 생각에 애썼었다. 물론 이 역시 10% 정도 정확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웠지만 안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전체 경기를 판가름할 대표성이 있는 장소로는 할인점을 택했다. 일반 소비자들이 얼마나 지갑을 여는가를 살펴볼

쁘다」고 부끄러웠고 있었던 것이다.

현장 취재를 갔던 할인점의 매출 성장률은 지난해 추석대비 3.3% 성장. 역성장률로 따지면 내년 매출 자료들을 보여 주면 비교적 오차가 적은 것이라는 생각에 애썼었다. 물론 이 역시 10% 정도 정확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웠지만 안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취재를 마친 기자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취재한 내용을 그대로 쓰자니 재목이 안 통하는 예매한 기사가 될 것이고, 파장을 섞어 제목이 폄하되 만들자니 「잘 된다」, 「안 된다」 중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기자는 고민 끝에 「그래도 추측은 대목, 중자가 상품 잘 팔려」라는 식의 기사를 썼다. 그리고 세부 내용으로는 부실한 상품 판매 현황과 분위기를 넣었다. 경기가 안보인 비애가 상품 판매 정보보다 뒤쫓아드는 생각에서였다. 수고했다며 데스크와 동료기자들은 등을 두드리려 했지만 아무래도 뒷맛이 개운치 못했다.

「이제 좀까 말하거나 완전히 「대박」이 터져서 기사가 관란대...」 한 동료기자의 꾸짖음만큼이나 올 추석 경기 취재는 힘이 들었다. 기사 제목 뽑기 좋게만 세상일이 이뤄지면 좋으련만,

“쫄딱 망하거나 대박 터져야”

고 경쟁자들이 내놓은 10% 내외 성장이란 자료와도 차이가 컸다.

그러나 보니 언론사들도 헛갈리기 시작한 모양이다. 똑같은 출처를 가지고 썼음에도 「불경기」여파로 추석 경기 밑바닥이라거나 「추석 매출 순항, 경기회복 불세 보인다」라는 기사가 나란히 되는 판에 뵈었다. 서로 먼저 쓰고 싶어 확실한 매출 집계 나오기 전에 기사 작성에 들어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헛갈리는 정보 때문이기도 하다. 분명 어느 한 쪽 기사가 옳았지만 어느 누구도 옳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오보의 위험을

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유통채널을 택해야 하기에 백화점과 대리점장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할인점 현장에 나가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실물경기는 좋다고 말하기가 무리가 있었다. 비싼 선물용의 매출은 전반적으로 둔화됐고 중저가 상품이 생활품 위주로 구매가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값싼 비료 제대로 익지 않아 물량이 부족했던 사과와 배는 「부르는 게 값」이란 말이 나올 만큼 가격이 비싸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있었다. 민심은 「지갑을 열기에는 아직 이

신刊

■ 한국미술의 역사

—金元龍·安輝濤 共著



국내 고고 미술사학계의 대두故金元龍(45년 京城帝大卒)과 모교 고고미술학과安輝濤(67년 文理大卒)교수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미술을 다룬 한국미술사 입문서.

三編 金元龍先生이 1968년에 「한국미술사」 초판을 내놓은 뒤, 1973년에 한 차례 증보되고, 1986년부터 전면적인 개정 작업을 거쳐 안교수와 공저로 1993년에 「한국미술사」로 재출간됐다. 이번에 나온 「한국미술의 역사」는 「신간 한국미술사」를 또다시 대대적으로 개정 증보한 것이다.

최신 내용의 6백여 컷의 원색 도판을 수록하여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시공사刊·값48,000원)

■ 명창선생 행장기

—崔俊浩 著



법 부부, 김창정 등에서 불거졌다가 1986년 검찰 부이사관으로 명예 퇴직해 경기도 김포에서 밭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崔俊浩(56년 法大卒)동문이 펴낸 수필집.

「독도에 우리魂을 살아 숨쉬게 하자」 「茶山을 찾다」 「아! 감자탕 어른」 「영경조를 기린다」 등 40여 편의 수필과 산문시 「아—나의 부류」, 그리고 이노우에 아스시(井上靖)씨가 경주를 돌아본 1권을 담은 글 등이 실렸다. (글온터 디자인·값9,500원)

■ 韓·中·日 漢詩 100選

—李相熙·李相漢·李榮九 編著



모교 국어교육과 李相熙(58년 師大卒)평예교수와 중앙대 문학부 李榮九(55년 文理大卒)화장과 함께

한·중·일 한시 1백편을 소개하고 있다.

한시의 분류인 중국의 한시가 한국을 거쳐 일본에서 쓰여지기까지 각 나라의 정서를 나타내면서 독특한 문화의 한 성채를 이루었고 그러한 동아시아 3국의 한시를 엄선했던 한 권의 책으로 엮어졌다는 것은 정말 고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예문당刊·값12,000원)

■ 韓國 企業文化의 展開에 關한 研究

—金祐浩 著



21세기 기업문화 연구에 관한 김祐浩(61년 文理大卒)대표가 기업체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기업문화를 테마로 연구한 논문을 책으로 펴냈다.

金祐浩는 이 책에서 기업이란 인구가 발전시킨 이익조직이며 경제체제로서, 생산을 담당하는 실체로서 기업문화의 중심이 되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하고, 기업문화는 자본주의라는 정치사회체제에서 발전된 인류문화의 조직이기에 21세기에서는 기업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절실하다고 역설한다. (일신사刊·값15,000원)

■ 저널리즘의 가치와 철학

—奇宇卓 著



홍익대에서 교양매스컴을 강의하고 있는 奇宇卓(63년 文理大卒)동문이 「저널리즘의 가치와 철학」을 출간했다.

중앙일보·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한 바 있는 奇宇卓은 이 책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요한 話題가 되고 있는 언론의 참뜻과 우리 시대의 바람직한 언론상을 奇宇卓의 주위 학자에 입각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언론의 공공성을 뒷받침하는 철학적 배경으로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 월터 리프만의 저서를 인용했으며, 중앙일보 그리고 우리 선인들의 철학적 단상에서 공통된 윤리학과 근원을 추적하고 이를 실천적으로 언론에 구현하기 위해서 올바른 언론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영어네트·값15,000원)

■ 20세기의 역사철학자들

—林熙完 著

지난 8월 건국대 사학과 교수

추억의窓

강의와 실험의 연속인 학교 생활이 약대의 자랑 곳은 날이면 교수회관 「함춘원」 물래 들어가기도

嚴泰允(63년 慶大卒)한국원자력연구소 초빙연구원

40여 년이 훌쩍 지나 버린 학생시절이나 추억이라 해도 가물거리는 기억들의 단편들로, 어찌할 수 없는 세월의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그 시절을 지낸 세대가 모두 겪었던 온갖 어려움을 돌이켜 보면 우리는 정말 없는 것이 더 많았던 학교생활을 보냈다. 그 당시 연건동 의과대학 뒤에 자리 잡은 약학대학은 겨우 강의실과 연구실만 있었을 뿐, 도서관조차도 없었으니 학생들을 위한 다른 편의시설이야 말할 필요도 없는 실정이었다.

도서관은 건 건너 문리대 구내에 있는 것을 이용했고, 빈번한 식당마저 없어 좋은 날씨에는 구내 한쪽을 덮은 작은 돌산이 유일한 쉼터였으니, 추운 겨울이나 곳은 날씨에는 교실은 모든 편의시설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학교 시절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이 강의와 실험으로 이루어졌더라 — 일주일에 44시간, 4년간 1백76학점을 이수했다면 지금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는 — 교실과 실험실 외의 편의시설을 찾을 일도 거의 없고, 수업과 수업의 연속인 학교 생활이 그 당시 약학대학의 자랑(?)이었다. 오죽하면 4년간 남들이 더하는 수강신청이라는 행이 한번 없이 졸업했을까.

여행 가방 만한 개인 실험 도구 상자를 들고 공나를 시루 같은 버스를 타고 다닌 일들이 우리 동기를 모두의 즐거움 추억담이 섞여 있다면 오늘날의 대학 생활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 될 것이다. 어려운 학교 생활에서 그나마 호사를 할

수 있었던 일은 같은 구내에 있는 의과대학 덕분이었다.

지금 교백하거니와 의대 본관 6층에 있는 의대 도서관은 모든 면에서 문리대에 있는 중앙도서관과 비교할 수 없는 안락한 시설이었다. 같은 서울대라도 다른 대학이라 생각해서인지 별로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 항상 조용했고 특히 겨울철에는 난로가 없는 훈훈한 난방까지, 완벽한 도서관을 혼자 슬금슬금 이용하여 호사를 했다.

또 하나는 「함춘원」이라는 예쁜 이름의 교수회



관이었다. 우리네 주머니 사정으로 점심 시간만 가지야 연강생심이었지만 그곳은 날씨에 비어 있는 밤을 이용하여 앉아

있거나 해도 마냥 좋기만 했다. 그런 일이 많지 않았는지 그때 일하던 분들도 우리를 그냥 못 본 척 눈감아 주었으니 고마운 일이었다.

낯은 졸업앨범에서 찾은 이 사진(좌로부터 두 번째 필자)은 그때의 일들이 그대로 생각나게 하는 사진이다. 졸업사진을 찍느라 다른 친구들은 학교 교정에서, 건물 앞에서 모양새를 내고 있을 때 우리는 의과대학 교수회관의 한방에서 커피를 마시며 학장을 끝낸 준비를 했으니 생각하면 가난한 학생의 화려한 끝날이었다고나 할까? 지금의 사진에 나온 친구들 중 좋은 이미 세상을 날라 했고 셋은 먼 외국에서 삶의 터전을 잡았으니 지금 만나기도 쉽지 않아 더욱 옛일이 생각나게 한다.



직을 정년퇴임한 嚴熙完(65년 文理大卒)동문이 20세기를 대표하는 저명한 역사철학자들의 핵심

사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술했다.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은 주로 다윈과 프루트, 서펜슬러, 토인비, 나부어, 후쿠아비, 한팅턴, 펄리, 토를러, 월러스타인, 버먼과 같이 너무나 세상에 잘 알려진 문명비평가들이다.

이들의 주장들은 인류문명사뿐만 아니라 현대사까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각국 대종관부·값16,000원)

■ 재키 스타일

—정연희·정인희 옮김

각국영어교육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정연희(94년 慶大卒)동문과 국오강대 정인희(90년 家



의 상징인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의 생애를 1백여 장의 사진·삽화와 함께 정리했다. 영문원 저자의 단정하고 미국적인 못자림, 오나시스의 재혼 후 커리어와 성공과 부패한 딸들의 화려한 스타일, 오나시스 사후 발원되는 비자·싱크클라우스 등 잡지 편집인으로서 노획적인 면모 등을 볼 수 있다. (루브송·값38,000원)

■ 가르침에 대한 성찰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엮음

지난 1년 동안 서울대 교수 40명의 가르침이라는 주제를 두고 나온 다양한 대화의 기록. 이 책속에는 정년퇴임하는 선배 교수가 후배 교수들에게 주



는 예정이던 충고, 서둘러 교육의 방향을 물려주고 넘어진 교수들 사이의 열띤 토론, 학생들

을 가르치는 경험에 대한 진솔한 고백 등이 담겨 있다. (박영출판사·값10,000원)

公演

■ 李頌煥 호른 독주회

—10월 27일 예술의 전당

호른리스트 李頌煥(95년 韓大·KBS교향악단 수석 단원)동문이 호른 독주회를 연다.

독일 예선 프로그램 국립무대에서 디플롬과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한 李頌煥은 피콜레, 클리프, 로시니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정리=安興재기자)



문고

우람한 푸른 소나무 위의 학

尹張璽(50년 工大卒)모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유명한 원로 서예가 石田 黃旭 선생님께서 부탁하여 1985년에 나의 선친 熊祐翁의 가훈 회화를 써 받게 되었다.

「好德之人 自求多福 積善之家 必有餘慶」
선친 선생이 써 주신 우품용 가훈의 램차고 아름다운 회화 액자는 우리집 거실 잘 보이는 벽면에 걸려있으며 우리 가족들은 항상 이것을 바라 볼 때마다 우품용의 가훈을 명심하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된다.

선친 선생은 둘째 사위 고려대 黃丙國 교수의 숙부이며 그 분의 米壽에 握毫로 이 회화를 써 주신 것이다. 특별히 그 후에 나를 위해 「鶴立鵲松」이라는 회화를 하나 더 써주셔서 그 분의 고마운 뜻에 한층 더 감사하고 있다. 선친 선생은 내가 남원 윤씨임으로 시조 윤위공의 아호 鶴松居士의 앞글자를 따서 학립벽송의 회화를 써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윤위공이 젊은 시절에는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詩文과 풍류를 즐겨 스스로 호를 벽송거사라 하셨다. 그러나 고려시대 明宗 6년(1176년)에 嘉祿하여 관직에 나가셨다. 대학에서 학문을 가르치고 임금에게 經世의 도리를 강론했다는 國子司業의 벼슬에 계시다가 호남원찰사가 되셨다. 때마침 南原府에서 도적들이 난을 일으켰는데 공은 그 난리를 按撫하기 위해 軍驍로 직전에 들어가 그들을 설득

했다. 그들은 모두 감격하여 뒤우지며 해산하니 민생이 편안하게 되었다. 고려왕이 그의 공을 가상히 여겨서 南原伯으로 봉했다. 이에 따라 被平에서 分賞하여 남원 윤씨의 시조가 되었다.

선친 선생은 이와 같은 우리 가문의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 벽송거사의 훌륭한 업적을 귀감으로 삼아서 「우람한 푸른 소나무 위에 서 있는 학」과 같이 고상하며 淸雅하고 장수하는 사람이 되라는 깊은 뜻과 축복을 상징하고 있는 회화를 나에게 써주셔서 매우 고맙

게 생각한다. 나는 이 福額을 우품용 가훈의 액자 맞은편 벽면 상부에 걸어 놓았다. 학의 우아한 자태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이며, 울음소리가 10리 밖에서 들린다는 이야기도 있다. 群鶴一鶴, 鶴千年 등의 표현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예로부터 학은 평화와 불로장생의 상징으로 활용됐다. 학은 우리들에게 전갈감을 주면서 고고한 자세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상징적인 존재이다.

그 후 얼마 안 되어서 나는 우람하고

고상·청아·장수 상징하는 회화 받아

푸른 소나무 위에 두 마리의 학이 서 있는 동양화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그림 우측 상부에는 松鶴圖이라는 書題가 써 있으며 筆號 洪亨二학백의 서명과 인장이 나타나 있다. 이 그림 액자를 선친 선생의 학립벽송 회화의 편액 밑부분에 함께 어울리게 걸어 놓았다. 우리 부부는 선친 선생의 회화와 한 쌍의 학이 서 있는 송두학림의 그림을 함께 자주 바라보면서 벽송 위에 서 있는 학과 같은 아름다운 삶을 오래도록 영위하여

나갈 것을 명심하며 그 같이 되기를 항상 기원하고 있다.

선친 선생의 장손인 麗壽 黃邦衍씨는 조부님의 뒤를 이어 서예가가 되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나는 사위 黃炳國교수를 통해 그 분에게 부탁하여 1995년 올해 정월에 懸家訓 석장의 회화를 써 받았다.

「無爲自然 美惡隨成 純真應物 遊適自適 涉難登人 以信得義 言行敬成 適通至樂」
소우가운 회화의 하나는 긴 簾子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우리집 안방에 걸어 놓았으며 나머지 두 점은 편액으로 만들어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집의 거실에 걸어 놓았다.

우리 집의 후손들은 우품용의 가훈과 소우의 가훈을 명심하는 동시에 벽송거사의 후손임을 기억하며 선친 선생의 회화 「학립벽송」의 뜻을 항상 되새기기를 바란다.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이 벽송 위에 서 있는 아름다운 학과 같이 고귀하며 청아하고 장수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항상 성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다.

산업사회에 걸맞은 로스쿨제를...

李林澤(65년 工大卒)한국남부발전(주) 사장·전기동문회 회장



우리 나라는 유사이래 선제가 없는 40여 년의 짧은 기간 내에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탈바꿈 해 많은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교육열이 높고 친진국이 개발한 기술을 열심히 배워서 실현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공계 출신의 기여가 많았던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포스코,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외화를 주로 많이 벌어들인 국내 유수 기업의 최고 경영진은 대부분 이공계 출신이다. 이들은 현재 국가 경제의 중추를 짊어지고 새로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 유수 공과대학 학생들이 이공계종 공부를 견어치우고 고시공부에 전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경쟁시험이 고지였다.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볼수록 명확한 사실이 돼 가고 있다.

본래의 심각성은 많은 고시 출신들이 국제사회와 산업사회에 걸맞는 지식과

대외 협상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 우리나라를 하고 있는 정부나 공기업의 최고 경영진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관리능력이 있는 인사도 있지만 고시 출신의 일반 관리능력만 있는 인사의 경우가 더 많아 국가경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고시제도를 보면 법 구절을 암기하고 구사하는 논리적인 사고의 인재를 배출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인사들은 법률 적정히 적용하면서 법집행을 다스리고 관리

전문가가 아니므로 토론장에 끼일 수 없고 출마도 없는 것이다. 기회 삼아 토론회에 등록함으로써 참가하고 2~3년이 지난 다음, 다른 자리로 옮기면 또 새로운 분야에 새롭게 시작해야 되므로 전문기라기보다는 총론적인 지식만 가지고 정부부처와 공업을 경영한다. 현시대는 국제사회이기 때문에 국내 문제보다는 국제 문제가 더 많고 국제 거래관계에서 법적인 지식이 없으면 많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

고려하고 있다.

필자는 1988년에 캐나다에서 최고 경영자 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때 교과 과목 중에 국제법, 노동조합법, 상거래법 등이 포함되었는데 교수들이 모두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의 과목을 전공한 연후에 로스쿨(Law school)을 다니면서 전문분야를 확대하여 총사하고 있다는 점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산업사회에 걸맞게 능력 있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산업사회에 걸맞는 다양한 분야를 이수한 사람이 로스쿨에 진학하여 이수한 다음에 공직사회나 국제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 직업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인계교육 시스템으로 바꾸어 고시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적성에 맞추어서 다양하게 산업사회, 국제사회에 걸맞게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은 스스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기술의 혁신과 발달로 우리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국민 소득 2만불 달성과 나아가서 선진국 국민으로 자부 할 수 있게 된다.

고시 출신들 대외협상 능력 떨어져

하는 것은 잘 할 수 있지만 특정 전문 분야를 관리하는 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점을 논의하는 국제 토론회의 수가 많이 늘었다. 우리 나라의 대표로 참석한 정부 관리들은 대개가 준비해온 원고만 읽고 그 자료를 떠나는 경우가 태반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설명한 내용에는 관심이 없다. 대부분

다. 따라서 단순 전문관리자가 아닌 법에 대한 소양도 함께 지닌 인사들이 나라를 많이 관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사회는 경쟁력 회복에 결정적 기여를 해야 할 이공계 출신들이 고시에 얽매는 적재적소에서 배척되고, 전문분야 관리능력이 있는 사람 위주보다는 현충에 따른 사람들이 더 많이 동용되는 현실로 인해 이공계 산업뿐만 아니라 정부운영에도 심각한 문제를



金道澤 前경희대 치대 학장

1녀2남·손자 등 동문 대다수가 공대 나와

막내사위·손자를 비롯해 3대가 치과의사

남녀가 百年佳約을 맺어 百年偕老 하 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살아하면서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나야 많이 만나는 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 보내야 할 때도 있고, 먼저 가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실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金道澤(41년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卒·前경희대 치대 학장)동문은 그런 면에서 는 정말 행운아다. 90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동갑인 부인이 열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金동문은 「이직 아흔은 아님니다. 만으로는 89세이기 때문에 어 디기도 89세라고 하지요. 오늘 부인과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딱 5년 만 더 살자고 서로 약속을 했다」며 세월 을 함께 먹은 듯한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짓는다.

건강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술, 담배 하지 않고 86세까지 30년간 골프를 친 것」이라는 金동문은 어릴 적 부터 교육자를 꿈꿨다. 독학으로 모교 치대에 입학해 평생을 후학양성에 헌신 했으며, 지난 62년에는 모교에서 의학박 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경희대 초대 학 장, 치대동창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등 치의학계의 원로로 알려진 金동문은 정년퇴임 후에도 79세까지 치과의를을 개업했으며, 이후 3년간 윤성 꽃동네에 서 불우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보여왔다.

한편 金동문 가족 가운데는 유난히 공 대를 졸업한 동문들이 많다. 장녀 金敬 淑(54년 工大卒)·崔日柱(55년 工大卒·前AMOCO 부사장)동문 내외, 장남 金 鍾遠(58년 工大卒·前농림부 기술심의 관)동문, 차남 金鍾輔(67년 工大卒·인 한대 기계공학과 교수)동문이 모두 공대

문과 함께 동창회 일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金敬淑동문은 동창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 한인사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 을 정도로 한인교류에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장남 金鍾遠동문은 누님의 권유에 따 라 공대를 들어갔고, 손자인 金永梧동문 은 부친이 공무원으로서 국토건설에 매 진하는 것을 보고 자연스레 공대를 지원 했다. 공학도가 거의 없었던 농림부에 입사해 40여 년간 외길을 걸어온 金鍾遠



뒷줄 좌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두 명 건너 成在鉉 成重源동문, 세 명 건너 金永梧·金鍾 遠·金鍾輔동문, 세 명 건너 崔日柱·金敬淑동문, 金道澤동문 내외.

출신이다. 여기에 손자 金永梧(89년 工 大卒·모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동문은 부친 金鍾遠동문과 같은 토목공 학과 선후배이며, 막내 사위 成在鉉(72 년 工大卒·경북대 교수)동문의 장남 成 重源(2001년 工大卒·공중보건과)동문 역시 부친의 뒤를 잇고 있다. 3대에 걸 친 서울대 가족인데다 공학도父子와 치 의학도父子가 나란히 자신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셈이다.

사위 成在鉉동문을 제외하고는 직계 가족 중 치과의사가 된 자는 한 명도 없다. 金道澤동문은 장녀 金敬淑동문이 판사가 되기를 바랬지만, 당시 가장 들 어가기 힘든 화과를 선택해했다고 해 여 자로서는 드물게 화학공학과를 선택했 다. 金敬淑동문은 MIT에서 석사학위, 시카고의 II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국 방과학연구소에서 만난 남편 崔日柱동문 과 함께 현재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崔동문은 재미총동창회 평의원, 시카고 지부 동창회장 등을 맡으면서 金敬淑동

문은 농어촌연구원장, 사업본부장 등 을 역임하며 농업용수개발에 모든 열정 을 쏟았으며, 물불도를 제하고 전국에 댐아보지 않은 郡아없을 정도이다. 그 바통을 이은 金永梧동문은 한국수자원공 사에서 실용화단계에 있는 낙동강과 금 강유역의 댐군 최적연계운영 모형을 개 발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 다. 차남 金鍾輔동문은 법대를 지원하려 했으나, 4·19가 터지고 사회가 혼란스 러워지자 이에 회의를 느껴 공대를 지원 했다고 한다. 특히 金鍾輔동문은 주변의

장녀 金敬淑(54년 工大卒)

장남 金鍾遠(58년 工大卒)
前농림부 기술심의관

차남 金鍾輔(67년 工大卒)
인한대 기계공학과 교수

사위 崔日柱(55년 工大卒)
前AMOCO 부사장
成在鉉(72년 工大卒)
경북대 치대 교수

손자 金永梧(89년 工大卒)
모교 공대 교수
成重源(2001년 工大卒)
공중보건과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선교활동을 펼 치고 있어 1인2역으로 더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막내 사위 成在鉉동문과의 인연은 경희 대 학장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모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成동문은 경희대 1기 입선으로 들어갔다. 몇 년간 옆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마음에 들던 찰나에 미국 에서 많이 귀국, 成在鉉동문이 먼저 그 사 실을 알고 자연스레 만나게 됐다.

끝으로 金동문은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한가지 있었다. 「용기 있는 장수가 德 있는 장수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과 함께 무엇보다 우리 집안에 들어온 사람 들, 특히 며느리에게 더 잘하라고 말합 니다. 제 갈 길들을 다 잘 가고 있으니, 앞으로는 가장 가까운 집안 식구들을 서 로 잘 챙겨주세요」

(表)

「서울대 가족」을 찾습니다

「서울대 가족」코너에 소개할 동문 가족을 찾습니다. 형제, 자녀, 친척 등을 포함해 동문이 4명 이상인 가족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고, 사진과 함께 추억이詰인한 가족들만의 진솔한 얘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121-812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편집부
전화 02-702-2233, 팩스 02-703-0755, e메일 snua@korea.com

희애의 동문

(주)한국이엔엑스 金忠漢회장

『남은 여생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보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제는 나눠줘야죠』

한국근육병재단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金忠漢(19기 AMP·18기 ACAD)동문은 『우리 나이(60대)가 되면 다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겸손한 웃음을 짓는다. 현재 金동문은 근육병재단 외에도 유니세프, 인터플랜, 사랑의 전화, 한국재활재단에도 매달 도움을 주고 있다.

『근육병재단을 설립할 때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해 오다가 6년 전 헨리다스크 이심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근육병 환자를 돕는 분들을 만나면서 근육병재단 설립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재할 의학과 의사인 큰딸이 권유하기도 했고요』

현재 국내 근육병 환자는 2만5천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지만 병원에 입원해 체계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근육병은 근육이 서서히 무기력해지는 질환으로 3~4세에 발병해 평균 20세를 전후해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병은 한 가정에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환자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다른 병에 비해 가족들의 고통도 크다.

이런 환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해 1997년 한국근육병재단이 설립돼 현재 1천4백여 명의 근육병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단체가 주력하는 분야는 진료활동, 의료용품 제공, 홍보활동 등이

60여 명의 의사와 자원봉사자로 이뤄진 「근육병 크리닉」을 통해 체계적인 조 기진단, 재활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3년 전부터는 「근육병 재활 연구소」를 개설해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찾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용품 제공에도 열심이다. 그동안 의료적으로 소외된 근육병 환자들에게 호흡기 26개, 휠체어 1천1백8대, 장애인 자용 책걸상 2백여 개, 그 외 보조기 1

백14여 개 등 3억원 상당의 의료용품을 지원해왔다.

근육병 환자를 위한 자선행사인 「함께 걸어요」를 매년 개최해 근육병을 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행사에는 이문세, 박삼형씨 등 유명 연예인이 참여해 근육병 환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러나 金동문은 보다 많은 환자를

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한다.

『재단이 설립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진료 요소가 필요한데 건립비용,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돼 사업진행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근육병은 다른 병에 비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후원금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곧 요소소 건립도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金동문은 한국일보 부사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주)한국이엔엑스라는 디스플레이 업체를 운영하며 국내 전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南)



97년 근육병환자 위해 재단 설립
“진료 요소소 건립이 시급합니다”

Noblesse Oblige

우리 나라의 IMF 시절을 기억하는가. 그 와중에 「나라 살리기 금 모으기 운동」은 매스컴을 비롯해 전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이를 제안하고 시작한 인물이 평범한 한의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전호한 의원 원장으로 있는 尹碩翰(43기 ACAD·46기 AMP)동문(사진 右)이 그 주인공. IMF 사태 3일째 날, 문득 이러한 아이디어가 떠올라 종로의 금방 주인들을 불러모아 이러한 운동을 시작했다. 또한 그는 무료진료를 하기 위해 이에 열전고 공원과 여의도 공장에서 노인 및 노숙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IMF 시절을 보냈다.

尹동문을 찾아간 것은 토요일 오전 9시. 그는 벌써 두 개의 회의를 참관하고 오는 길이었다. 그날도 환자를 보고 오 후에는 또 몇 개의 스케줄이 잡혀있었다.尹동문은 스스로를 일 종족 자라고 표현한다. 얼마 전 까지만 하더라도

전호한의원 尹碩翰원장

소아마비 장애 받고 20년간 무료 진료
“노인·중산층 위한 복지증진에 힘써 터”

도 전직 의무의촌을 돌며 무료진료를 했다. 하지만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힘들다고 하는 바람에 요즘에는 거의 가질 못한 다고.

한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 한쪽이 불편한 장애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자,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돼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발발고 나선다. 목 밑으로는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그는 대학시절에 도 남의 자전거 신세를 져야 했지만, 지금은 다리 한쪽을 제외하고는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해졌다.

『어릴 때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

다. 자살기도도 해봤고, 하나뿐인 아내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소연하기도 했지요. 이후 과부심정은 파부가 안다고 몸이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나를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대학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계층간의 갈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어. 보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장애인이지요. 처음에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마음속 속속할 수 있도록 이동목욕차를 만들어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장애인과 일반인들이 한 교실에서 교육받는 어린이집을 열어 지금은 전세계 국민들이 전화할 정도로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버림받은 노인, 무의탁 노인들의 복지와 중산층을 위한 복지 문제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처럼 장애인 복지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한의원 운영에 조금 소홀할 수

도 있었지만尹동문은 81년 한의원 개원 이래 하루도 빠짐없이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무료로 사랑의 仁術을 베풀어왔다. 살아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할 생각이라고.

『장애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근본부터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의학을 공부하니까 우리 모두가 장애인이지요. 나이가 들면 이도 빠지고,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굽어지는 등 우리 인생은 다 장애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한번쯤 되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

(表)



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에 임명됨.
▲**朱鐵基**(73년) 文麗大卒·前주 모로코 대사)=지난 8월 29일 주프랑스 대사에 임명됨.

▲**成相哲**(73년) 醫大卒·분당 모교병원장)=지난 9월 19일 제10차 대한관절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9대 회장에 선임됨.

▲**辛東奎**(74년) 商大卒·前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지난 9월 3일 수출입은행장에 임명됨.
▲**陸煥基**(74년) 商大卒·HBC코오롱 부사장)=지난 9월 16일 FnC코오롱 대표이사 부사장에 선임됨.

▲**李允浩**(74년) 醫大卒·모교 성형외과학교실 교수)=최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국제성형외과연맹 총회에서 극동지역 이사에 선임됨.

▲**李源德**(75년) 商大卒·한국노동연구원장)=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3차 세계노사관계학회 총회에서 임기 3년의 집행이사에 선출됨.

▲**張福鎰**(78년) 法大卒·대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관악회기금관리운영위원)=지난 9월 17일 대한투자증권 경영

본부장에 선임됨.
▲**夏仁卓**(79년) 工大卒·인텔개발 한국투자담당 본부장)=최근 중국 유대촌 업체인 어필텔 래플 사장에 선임됨.

▲**盧在善**(79년) 農大卒·모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지난 9월 24일 농림부 양곡유통위원회 위

▲**金鐵浩**(79년) 畜大卒·국립국악원 정악단 지휘자)=지난 9월 6일 3년 임기의 국립국악원장에 임명됨.

▲**金熙重**(80년) 醫大卒·모교 정형외과학교실 교수)=지난 9월 1일 모교 병원 홍보실 산하 진료협력담당에 선임됨.

▲**朴柄柱**(80년) 醫大卒·모교 예방의학교실 교수)=지난 8월 20~24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19차 국제약물학회 총회에서 fellow(특별회원)에 추대됨.

▲**朴世烈**(84년) 經營大卒·한국존슨앤존슨메디칼 상무)=지난 9월 1일 한국존슨앤존슨메디칼 사장에 선임됨.

▲**金勳基**(88년) 自然大卒·동아사이언스 과학동아 편집장)=지난 9월 25일 동아사이언스 신문 편집장에 선임됨.

▲**趙一相**(96년) 社會大卒·메트릭스 경영관리이사)=지난 9월 18일 인터넷 마케팅 조사업체인(주)메트릭스 대표이사에 선임됨.

▲**金勝範**(97기) AMP·하나은행장)=지난 9월 20일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한국CEO(최고경영자)포럼 총회에서 공동대

표에 선임됨.
▲**都東煥**(26기) AMP·대동출판 회장·민족문화

영상협회장)=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1기 운영위원에 임명됨.

▲**俞相五**(39기) AMP·코리아나 회장)=지난 9월 20일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한국CEO(최고경영자)포럼 총회에서 공동대표에

선임됨.
▲**朴庚洙**(51기) AMP·한국아쿠르트 영업총괄 상무)=지난 9월 22일 나드리화장품 사장에 선임됨.

▲**金哲**(45기) ACAD·前국회의원)=지난 9월 25일 경기 광주시의 뉴서울관광장을 운영하는(주)한국관광진흥 제8대 사장에 선임됨.

▲**도승호**(6기) ABP·대한투자증권 남대문지점장)=지난 9월 17일 대한투자증권 지원본부장에 선임됨.

▲**정교형**(11기) ABP·대한투자증권 대구지역본부장)=지난 9월 17일 대한투자증권 법인본부장에 선임됨.

▲**윤수**(13기) ABP·대한투자증권 경영지원실장)=지난 9월 17일 대한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장에 선임됨.

▲**김선영**(17기) ABP·대한투자증권 종합기획팀 부장)=지난 9월 17일 대한투자증권 경영지원실장에 선임됨.

▲**홍영국**(21기) ABP·대한투자증권 영업지원팀 부부장)=지난 9월 17일 대한투자증권 영업지원팀장에 선임됨.

행사·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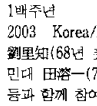
▲**趙守鎰**(47년) 美大卒·한국국제사법연맹 회장)=지난 9월 22~28일 예술의전당 서울아트센터에서 「2003 Seoul 국제사예전」을 개최함.

▲**姜信沆**(53년) 文麗大卒·한국어문교육연구회장)=지난 9월 26~27일 경희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국어교육과 국어정책의 발전」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함.

▲**李信子**(55년) 美大卒·캘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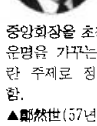
우덕 교문·미대동창회장)=지난 9월 17일부터 11월 9일까지 하와이에서 열리는 이민 기념전(Crossings 2003 Korea/Hawaii)에 모교



劉里知(68년) 美大卒·교수와 국민대 田啓一(79년) 美大卒·교수들과 함께 참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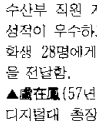
▲**宋鳳植**(55년) 法大卒·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지난 9월 19일 하와이 트호틀 로터스 호텔에서 柳大數 한국수페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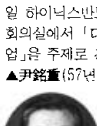
중앙회장을 초청, 「건강한 삶과 운명을 가꾸는 풍수와 수학」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鄭然世**(57년) 工大卒·한국선급연지니어링 회장·해항회 회장)=지난 9월 5일 해항회사 부설에서 전·현직 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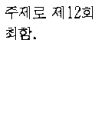
수산부 직원 자녀 가운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 28명에게 장학금 1천만원을 전달함.



▲**盧在鳳**(57년) 文麗大卒·서울디지털대 총장)=지난 9월 25일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시대의 기업」을 주제로 강연함.



▲**尹鉉重**(57년) 文麗大卒·한국연륜인포럼 회장)=지난 9월 16일 한국연륜재단에서 명지대 宋鍾奭(68년) 文麗大卒)



초빙교수를 초청, 「6자 회담과 한반도 평화 구현의 전망」이란 주제로 제12회 연륜인포럼을 개최함.

▲**李炳漸**(58년) 法大卒·FAO한국협회장)=지난 9월 26일 FAO한국협회 제94차 이사회를 주재하고 2003년 사업실적과 2004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함.

▲**李升煥**(59년) 法大卒·한국가스연맹 사무총장)=지난 9월 25~26일 태국에서 열린 사태평양가스(CANSEX 2004) 운영위원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함.

▲**俞東澤**(60년) 農大卒·한국단미시료협회장)=지난 9월 26일 서초동 호원센터로 그랜드 블룸에서 「전환적 육산

물 생산을 위한 사료의 이용·개발」이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함.

▲**徐丙鎰**(63년) 文麗大卒·동일연구원장)=지난 9월 26일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함.
▲**元佑鉉**(65년) 法大卒·고려대교수·한국연륜법학회장)=지난 9월 24일 한국연륜재단에서 제2회 월

우연법상 시상식 및 「방송의 자유와 이념보도」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함.

▲**李芳淑**(65년) 畜大卒·연세대학교수)=최근 브라질의 피아노음악 「립소다 작품 79」 「3개 간주곡」 「3개 소품 작품 118」 등

이 담긴 CD를 발간함.

▲千璽興(66년 法大卒·서울지방법원호사회장)=지난 9월 23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집합 제 96주년 기념식과 제1회 시민 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함.

▲申仲植(66년 文理大卒·한국



고흥사무실을 개소함.

유권자운동원 합 공동대표)=지난 9월 1일 전남 고흥읍 서문리 217-36에

▲孫菊任(68년 音大卒·숙명여대 교수)=지난 10월 2일 호남아트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열고 드뷔시, 쇼팽, 베토벤 등의 작품을 선보임.

▲林吉藏(69년 工大卒·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지난 9월 23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03 환경운동연합 후원

의 밤' 행사를 개최함.

▲金勳榮(69년 慶大卒·신용보증기금 감사·수원예술회 회장)=지난 8월 30~31일 수원 민서공원에서 '해피수원페스티벌'을 개최, 다양한 예술문화 행사와 한국외국인전자 공연을 펼침.

▲鄭昭盛(69년 文理大卒·단국대 교수·소설가)=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영어 번역된 대

하소설 '두 아내'의 불어판 출판계약을 맺음.

▲盧孝植(71년 音大卒·작곡가·인랜드 한인여성합창단 지휘자)=지난 8월 23일 미국 LA 올림피아고회에서 출판기념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출판된 5권의 편곡집은 예술출판사 金載善(86년 音大卒)대표가 심혈을 기울였으며, 백제에대 尹慶姬(82년 音大卒)교수 등이 축하무대를 화려하게 수놓았다.

▲趙德益(73년 文理大卒·한국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지난 9월 24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03 한중기술 투자

심의회'에서 개회연설을 함.

▲李煥邦(73년 商大卒·국토연구원장)=지난 9월 23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함.

▲殷熙哲(74년 醫大卒·모교 파부학교교실 교수·국제집행기구 부임연구회 이사)=지난 9월 19~21일 르네상스호텔에서 제14차 국제집행기구위원회 및 제7차 아시아·태평양 환경 및 직업부평학회회를 개최함.

▲金興來(74년 環大旋卒·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지난 9월 25~26일 팔레소호텔 코스모스홀에서 중국의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지린(吉林) 행정학인 관계자를 초청, 국가권

형 발전을 주제로 한중 학술세미나를 개최함.

▲玄在喜(76년 音大卒·세종대 교수)=지난 10월 10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모차르트, 베토벤, 알베니스 등의 작품을 열고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함.

▲孫英澤(77년 慶大卒·덕성여대 교수)=최근 세계적 인명사전의 하나인 마르퀴스 후즈 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의 2004년 개정판에 등

재됨.

▲南重秀(79년 經商大卒·KTF 사장)=지난 9월 23~25일 싱가포르의 홍콩에서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함.

▲徐榮俊(81년 慶大卒·모교 약학과 교수)=지난 10월 1일 자 '내이치 리뷰'誌에 국내 과학자로서 처음으로 논문

(화학적 양배방 분야에 대한 연구결과)이 게재됨.

▲林仁憲(83년 音大卒·주제에대 교수)=지난 9월 28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베토벤의 '바가텔 op.126, op.28' 등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함.

▲宋在光(80년 音大入·이화여대 교수)=지난 10월 2일 여의도 연산아트홀에서 오르가니스트 김희상씨와 함께

'오르간과 바이올린이 노래하는 찬양의 소리' 두오원주회를 개최함.

▲鄭善伊(84년 音大卒·서울아카데미임상심혈로 수석)=지난 9월 24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수베르티, 브람스, 마르티누 등의 작품으로

첼로 독주회를 개최함.

과 朱壽晟(92년 音大卒)전인강사의 피아노 반주로 클라리넷 독주회를 개최, 카발리에·브람스 등의 작품을 연주함.

▲鄭植鎔(82년 音大入·서울컴버오케스트라 단원)=지난 9월 24일 금호아트홀에서 모차르트, 베토벤 등의 작품으로 바이올린 독주회를 개최함.

▲趙煥熙(88년 自然大卒·90년 社會大卒·서울스코프 발행인·늘봄출판사 사장)=최근 서문회 문화저널을 맡아 국

내외에 소개받은 월간 '서울스코프' 10주년호를 발간 배포함.

▲鄭元順(89년 音大卒·상명대 교수)=지난 10월 14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베토벤, 바흐, 라벨 등의 작품으로 바이올린 독주회를 개최함.

▲金道熙(92년 音大卒·하음컴버오케스트라 단원)=지난 9월 7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비올라독주회를 갖고 브람스, 블로흐 등의 작품을 공연함.

▲金澈進(33기 AMP·한국통기합회총·총연계선운동본부 총재)=지난 9월 25일 서울 YMCA 강당에서 문화시민권

페인 '총연계 문화실현 결의대회 및 운동본부 창립 제7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함.

▲金珍煥(6기 ACAD·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지난 9월 23일 농산물의 미주시장 수출확대를 위해 뉴욕 모국 농수산물 박람회장과 메츠구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펼침.

▲權赫鎔(4기 EPHM·신광환의원장·대안여한의사회장)=지난 9월 5~12일 의료진 12명과 함께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에서 3일간 명의 환자에게 한방 의료봉사활동을 펼침.

(정리=史興發기자)

미대 70학번 동기 24명

유엔본부 한국관 갤러리서 'Little Flags for Peace'展

모교 미술대학 70학번 동기 24명이 지난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유엔본부 한국관 갤러리에서 평화화를 위한 소망을 담은 작품전(Little Flags for Peace)을 개최했다.

전업작가도 활동하거나 대학에서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는 이들은 6·25전쟁을 전후해서 태어나 전쟁의 공포를 모태로부터 느꼈기에 50년 이 지난 이제 새 전란의 분 분화의 비극적인 현장 뉴욕에서 평화의 작은 깃발을 든 것이다.

秋明媛동문은 '우리의 자들이 유전적 신념의 발전이 리면 우리 전쟁동지들의 삶의 여정은 결국 평화화를 위한

모색이었음에 동의하면서 우리 작품 자체는 평화화를 위한 표현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란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는 姜銀連(74년卒)·權聯鎔(74년卒)·金 億(77년卒)·朴南姬(74년卒)·朴鍾仙(74년卒)·朴汎津(74년卒)·白光基(77년卒)·白純實(74년卒)·吳泳玉(74년卒)·劉孝澤(74년卒)·尹致憲(77년卒)·李白花(74년卒)·李仁沃(74년卒)·李柱澈(74년卒)·張秀英(74년卒)·趙泰炳(77년卒)·智貞愛(74년卒)·車姬仙(70년入)·崔明愛(74년卒)·崔美英(74년卒)·崔允植(74년卒)·秋明媛(74년卒)·河秀京(74년卒)·許泰順(74년卒)등 24명.

아울로스 목관 5중주

제14회 정기연주회 개최

지난 10월 1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아울로스 목관 5중주'의 열네 번째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이번 공연에는 李昌珠(71년 音大卒·리리니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클라리넷)·金亨燮(76년 音大卒·서울시향 수석·오보에)·金泳律(80년 音大卒·모교 기악과 교수·호른)등 5명, 주재예대 송영지(플루트)김민교수, 현악대 김충배(바순)교수가 참여했으며, 모교 기악과 朱壽晟(92년 音大卒)전인강사가 피아노 반주를 맡았다. 비제의 '목관 5중주'를 위한 카르네 모음곡, 첼링의 '피아노와 목관 5중주'를 위한 6중주, 무엘릿의 '피아노와

목관 5중주'를 위한 6중주 내림나장조 작품6' 등이 선보였다.

'아울로스 목관 5중주'는 1989년에 국내 정상급 오케스트라의 수석주자들이에 의해 창단된 단체인 그동안 13회의 정기연주회와 1997년 서울음악제 참가, 금호갤러리 초청 연주회, 프랑스 작곡가 플랑을 기념하는 '프랑스 음악의 밤' 등 30여 회의 다양한 연주회 및 방송 출연을 하였다.

특히 한국 작곡가들의 창작

작 발표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1998년 제26회 Pan Music Festival에서는 한국 창작곡들로 특별연주를 해 호

평을 받은 바 있다.



華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함.

- 오창호 군·윤명희(94년 看護大卒)양=10월 18일 15시 30분.
- 허병현(98년 工大卒)군·박신은 양=10월 25일 14시.
- 최상용(90년 工大卒)군·김소영 양=11월 1일 14시.

이런 일 합니다

② 감사원



감사원 전경

신라 司正府에서 유래

한국의 감사제도 유래는 고대 국가가 형성된 신라시대의 司正府를 전점으로 공내에 내사정, 지방의 주·군에 외사정을 설치·운영한 것으로부터 찾을 수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정부에 관하여 그 질질못과 개선방안 등을 왕에게 보고하고 백관의 공생활을 규율하여 죄가 발견되면 탄핵하는 기능을 가진 司憲臺가 그 기능을 계승했다.

조선시대에는 司憲府 및 司諫院(司憲府와 합하여 兩司)에서 백관을 규율하고 풍속을 바로 잡으며 임금에게 간언하고 정사의 잘못을 논박하는 정부를 관장했고, 어사 박문수로 유명하고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암행어사 제도를 운영하여 임금이 어사를 비밀리에 임명, 지방관리의 비리를 감찰함으로써 백성들의 억울함을 줄이는 현대판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쳤다.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

해방과 더불어 과도정부에 두었던 재무부 내의 회계감사국(1948년 2월)을 모체로 하여 1948년 9월 제헌헌법에 따른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삼계원은 14년여 동안 헌법기관으로서 회계감사기능을 수행했고, 직무감찰분야는 1948년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감찰위원회에서 사정위원회(1955년), 감찰위원회(1961년) 등으로 조직이 변경돼 수행되어 오다가 삼계원과 감찰위원회의 기능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1963년 3월 20일 감사원을 설립, 두 기능을 하나로 통합했다.

헌법기관으로서 지위 갖춰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에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주임무로

대통령 소속에 들어서서 국회, 헌법,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헌법기관으로서 지위를 갖고 그 직무에 있어서는 법률에 의하여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다.

또 감사원은 변성관직 중 사법직 기능을 수행하는 업무성격에 비추어 헌법 제98조에서 5인 이하 11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기관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감사원법에 따라 7인의 감사위원으로 감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조직에 있어서도 독립성이 매우 강하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감사원장은 국회의 축출한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임명된다.

회계 감사와 직무 감찰

감사원의 임무는 먼저 국가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들 수 있다.

회계에 관한 구체적 임무로는 회계감사대상을 필요적 검사사항과 선택적 검사사항으로 구분하여 회계검사를 하고 국가의 수입·세출의 결산은 검사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하는 결산의 확인, 국가의 각 기관이 회계 관계법령, 감사원의 권한 등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고자 할 때에 감사원은 그 의견을 표시하고 회계사무담당자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회계 관계법령의 해석상의 문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해석하고 답변한다.

다음으로 직무감찰 관련 사항이다. 직무감찰은 공무원의 비위감찰 뿐만 아니라 법령·제도 또는 행정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행정사무 감찰까지 포함해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그

63년 설립...동문 1백여 명 활약

행정기관·공무원 직무 감찰 “으뜸”

글 : 崔塚宇(86년 經營大卒) 감사원 심사과 감사관

소속직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하며, 직무감찰을 원활히 하기 위해 188신고 등 민원을 제기하게 하거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두어서 민원인이 감사원에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송부된 민원사항과 위법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위탁조사를 실시한다.

또 중앙행정기관 등 감사대상기관의 처분 등의 행위가 적법하게 유지되도록 감사대상기관의 처분·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할 수 있는 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행정기관의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국가행정이 정상적(합법적·합리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임무를 갖는다.

한편 감사원의 인원이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기능을 보호하면서 자체감사를 지원하고 있다.

1원·2실·7국 등으로 구성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의 지휘 감독하에 사무처와 감사교육원을 두고 조직은 <별표



감사원 원훈석

>와 같이 1원, 2실, 7국, 3관, 1부, 7심의관, 57과, 11담당관으로 편제되어 총 8백8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3년 편성예산은 약 6백여 억원이다.

제1사무차장 소관의 제1국은 경제 부처 감사, 제2국은 정부투자기관 감사, 제3국은 건설교통부·공사담당 총괄, 국책사업 감사단은 다수 부처 관련 주요 국책사업 감사를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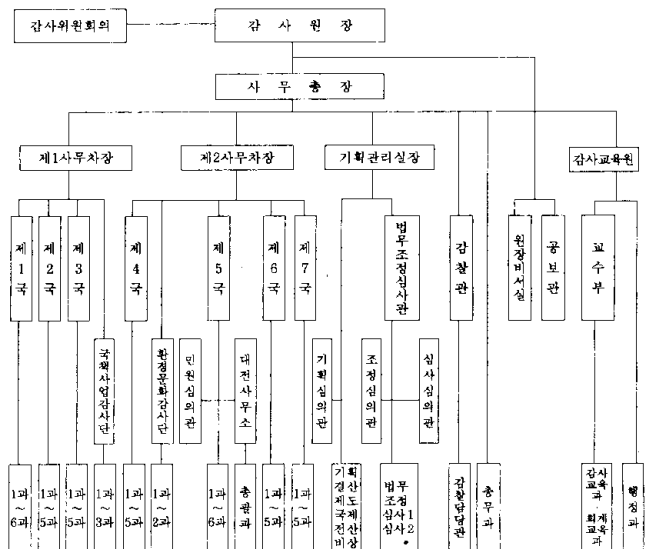
제2사무차장 소관의 제4국은 비경제부처 감사, 환경문화자산단은 환경·보건·관광·문화분야 감사, 제5국은 지무감찰 및 민원사무, 제6국은 행정자치부의 수도권 지자체, 경찰청, 제7국은 대전시 이하의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감사사항을 전담한다.

기획관리실에서는 국회업무와 대통령 보고사항, 전산, 국제업무 처리하고 기획관리실 소속의 법무조정심사단은 법 개정과 감사처리안 검토 및 심사청구업무 담당하고 그밖에 총무과, 정보관 등의 비리인 부서가 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감사교육원은 감사원 직원 뿐 아니라 6만3천여 개의 감사대상기관의 회계직 공무원과 감사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여 예방감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밖에 사회 각 분야의 폭넓고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부정부패 방지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20인 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되는 부정방지대책위원을 감사원장의 자문기구로 두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은 회



계검사 기준으로 필요적 검사대상 기간 3만5천여 개, 선택적 검사기간 2만9천여 개 등 총 6만5천여 개에 달하는 바 국가기관, 자치단체, 투자기관, 공적단체의 사무와 그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에 대하여 직무감찰 활동을 수행한다.

6만5천여 개 기관 검사

감사는 직원의 현지 피견 여부에 따라 서명검사와 실지검사로 나누어진다. 실지검사는 검사대상기관의 주기능, 주업무에 대하여 순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일반검사와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계통적으로 실시하는 특별검사로 대별된다.

또 최근 관공이 고조되고 있는 평가관련 분야를 포함해 국가의 주요사업·시책의 경제성·효율성·효과성 등을 검증하여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성과검사와 비리척결을 위하여 특검·특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정검사가 있다.

감사원에서 수행한 검사에 따른 결과의 처리에 있어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국가책임에 대하여 회계적 공무원에게 변상책임을 지우거나 징계·문책 상여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 등에게 징계 또는 문책 요구를 하고, 감사결과 반정된 위법 또는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 요구하고 경우에 따라 소속장관 등에게 관련자에 대한 조정을 요구한다.

또 선진국의 감사추세인 효율성 사업과 결과 및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기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선을 요구하고, 부처할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개시 등을 요구하기보다는 관계기관의 자율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등에게 권고 또는 통보를 한다.

이외에도 감사결과 및 범죄의 기와 고지 인정할 때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요청을 하기도 한다.

국정 효율성 제고에 치중

최근 감사원의 감사운영방향은 국가운영체계 및 주요 정책들을 제도메이커에서 재정검사를 통해 정부정책의 추진적 극 지원, 고비용 저효율의 국가·사회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개혁지원 검사', 주요 시책사업의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분석하고 집행과정을 상세 점검, 사업추진의 시효화도 예방 및 사업성과를 제고하는 '생산적 검사', 공개검사와 국민감사기구제도를 활성화하고 민원 직접처리율 확대 등으로 국민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고 국민 참여와 통합 위

도하는 '열린 검사'를 지향하여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감사에 치중하고 있다.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환란 검사, 공직자금감사, 제단체에 대한감사에서부터 최근에 수행한 감사사항인 필당상수원 수권관리실제, 전자정부 구현사업 검사, 복권사업, 정부위원회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실제 등을 보면 감사원의 감사가 국정전반에 걸친 비효율과 애로점들을 발견하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감사원은 수천 건의 민원접수와 처리, 수백 건의 심사청구의 처리를 통하여 행정처리로 인해 국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행정부를 통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원의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최근에 행위의 재정에선 통제기능과 행정부의 정책사업 평가에 대하여 감사원이 일정한 역할을 해줄 것을 국회와 대법원으로부터 동시에 요구받고 있어 감사원의 국가행정의 중재적 기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대판 암행어사 출동

약 1천명이 조금 안되는 감사원 전체 인원 중 1백명에 가까운 중문들이 감사원에서 핵심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감사원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감사위원회의(감사위원 포함하여 7인)에서 감사인정과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감사위원(위원장)에 韓光洙위원은 2세부터 활동하고 있다.

韓光洙위원은 1969년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후 검찰청 검사로 공직을 시작하여 1997년 제 주지법감찰청 감사장,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거쳐 2000년에 감사원으로 영입되어 직무감찰과 민사분야 등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선 파견들이 감사원 장에서 부딪치는 어려운 사건 처리방식에 많은 조언을 주는 등, 감사원의 결정이 객관적으로 운영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鄭鍾瑞위원은 1975년 행정고시 16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1976부터 감사원에서 근무한 이후 일선 감사원장에서의 풍부한 감사경험을 가진 정통 감사맨으로서 많은 감사인사가 전해지고 있으며 감사원 사무총장을 거쳐 현재 감사위원으로 감사원의 이상과 현실을 조화롭게 조율하고 있다.

鄭鍾瑞위원은 1974년 행정고시 15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1976년부터 감사원에 몸담아 기획관리실장 보직으로 감사원 운영전반의 개혁에 기여했으며, 특히 2001년 사무총장 재직이후는 세계 4백여 국가에서 참가하는 세계감사원장

회의(INTOSAI)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감사원에 많은 직원들을 운운함으로 이끌어내며 합리적 감사원을 지향하는 데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감사원 사무처 동문들의 활동을 보면 야단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원의 일선국 중 특히 재정·금융·조세·국책사업 담당국을 관장하는 군단장이라 할 수 있는 제1사무처장에 孫承泰사무처장이 있다. 孫承泰는 공직자금, 공금기 구조조정, 재정개혁, 제단체 등 국정현안의 감사분야에 대규모 감사인력을 지휘하여 감사성과를 도출한 바 있으며 감사원 사무처 동문들의 회고 만담회에서 사무처를 개혁하면서 도입한 합리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왕선국을 보면 금융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의 감사를 총괄하는 뛰어난 유망각을 갖춘 崔榮進 국장, 토목건축과를 총괄하고 사나디온 특성과 실력으로 건설관련 감사를 소신있게 추진해 온 沈日憲 국장, 현재 건설관련 감사의 최고수장으로 활약하는 金鍾賢 국장 등이 있으며, 6만여 정부기관의 회계책임자와 감사담당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감사교육원의 교수부장으로 金興傑 국장이 활약하고 있다.

다음으로 입선과에는 감사원 상경계 출신의 최합장 金榮基 과장이 산업자원부 관련 감사사항을 담당하고, 成榮德 과장이 고속도로, 공항 등 대형사업을 처리하고 있으며, 洪正과장은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관련 감사사항을 처리하고, 2001년 세계 감사원총회의 개최준비를 총지휘한 시라푸스대학 행정학 박사 宋基顯 과장이 보건복지부 환경부 관련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또 청와대에서 사정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金榮德 과장과 동문들을 통솔하고 있는 이들과는 車在明 과장은 직무감찰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 수주제에 경제학 이론이 실린 경제학 박사이며 공인 회계사인 由成 과장은 법무관련 사항, 감사원 비리 최고수인 李世道 과장은 감사원 결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조정을, 정통 감사담당자 할 수 있는 金英奎 과장은 현재 국제업무, 전산과 박사학위를 보유한 金鍾榮 과장은 전산업무를 담당하면서 감사원 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한편 白仁基 감사관 외 16명의 동문이 과장을 보좌하는 감사관으로 일선 감사원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제학 박사 金慶後 부감사관 외 40여 명의 동문은 각자의 맡은 바 분야에서 묵묵히 활동하며 자력을 과시하고 있다.

감사원에서 활약하는 동문들의 출신과를 보면 다수를 점하는 법학과 경영, 경제이외에도 토목, 화학, 자원공학, 약학,

수의학, 불문학, 스페인어, 동북, 미생물, 농업토목, 농공, 농경제, 고고학, 지질, 정치학과 등 전학과를 망라하여 포교에서 갖고 닦은 실력을 종합적으로 감사현장에서 활용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감사원은 정부조직 하이어아키(hierarchy)의 최상위에 있지

만 감사의 본질상 최일선 행정기관 속에 파견되어 집행을 점검하는 관계로 감사원 동문들은 지금도 전국을 돌면서 과거 암행어사의 일을 현대적으로 변형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더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국가행정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앞으로 동문들의 활약을 더욱 기대해 본다.

〈감사원 동문 현황〉

이름	출생연도	직책
韓光洙	69년 법대 법학	감사위원
鄭鍾瑞	70년 사대 교육학	감사위원
鄭鍾瑞	71년 공대 농화학	감사위원
孫承泰	73년 농대 생물공학	제1사무처장
沈日憲	69년 공대 토목공학	국장(파견)
崔榮進	70년 법대 법학	제2국장
金昌煥	77년 공대 기계공학	제3국장
金興傑	74년 법대 법학	감사교육원 교수부장
金鍾榮	77년 농대 농경제학	기획관리실 전산담당관
金英奎	84년 사대 사회교육	기획관리실 국제담당관
李世道	77년 공대 섬유공학	법무조정국 조정담당관
李承成	81년 사회대 경제학	법무조정국 법무담당관
金榮基	69년 상대 경제학	제1국 제5과장
成榮德	81년 공대 건축공학	제3국 제5과장
宋基顯	80년 인문대 고고학	제4국 제4과장
金炳濤	80년 인문대 동양사학	제5국 제1과장
車在明	78년 공대 공법공학	제5국 제6과장
洪正	82년 법대 법학	제6국 제1과장
金明賢	93년 경명대 경영학	제1국 제4과 감사관
鄭鍾泰	86년 법대 사법학	제1국 제5과 감사관
崔榮進	90년 경명대 경영학	제2국 제1과 감사관
申榮濤	86년 사회대 정치학	제2국 제5과 감사관
成明濤	72년 농대 농공학	제3국 제3과 감사관
李道承	82년 공대 토목공학	제3국 제4과 감사관
白仁基	88년 약대 약학	제5국 제2과 감사관
李季善	72년 사대 의학	제5국 제4과 감사관
林龍基	74년 농대 의학	제7국 제2과 감사관
具本吉	87년 농대 축산학	제7국 제4과 감사관
鄭吉永	84년 인문대 불문학	심사1과 감사관
崔榮進	86년 경명대 경영학	심사1과 감사관
金炳濤	89년 인문대 고고미술	국제과 감사관
張興出	89년 경명대 경영학	결산과 감사관
金榮基	90년 사회대 경제학	기획과 감사관
金榮德	94년 농성대 농경제학	대전자무소 감사관
金光壽	94년 경명대 경영학	감사관(해외 파견)
宋基顯	95년 자연대 천문학	감사교육원 부감사관
鄭鍾泰	92년 사회대 경제학	제1국 제1과 부감사관
金榮進	96년 사대 경제학	제1국 제2과 부감사관
任相赫	97년 경명대 경영학	제1국 제1과 부감사관
李相哲	87년 자연대 동물학	제1국 제2과 부감사관
鄭鍾泰	89년 경명대 경영학	제1국 제4과 부감사관
沈龍植	99년 자연대 해양학	제1국 제5과 부감사관
金英奎	87년 농대 농경제학	제2국 제1과 부감사관
鄭鍾泰	89년 사회대 정치학	제2국 제4과 부감사관
金榮進	97년 공대 토목공학	제3국 제1과 부감사관
白仁基	88년 공대 건축공학	제3국 제5과 부감사관
金榮德	84년 법대 법학	제4국 제5과 부감사관
金榮德	97년 법대 공법학	제4국 제5과 부감사관
李容熙	94년 공대 자원공학	제5국 제1과 감사주사보
吳榮模	94년 수목대 수의학	제5국 제2과 감사주사보
丁光明	97년 법대 공법학	제7국 제2과 부감사관
金榮進	97년 인문대 사문학	제7국 제3과 부감사관
金榮進	91년 인문대 고고미술	제7국 제4과 부감사관
張主欽	96년 농성대 농공학	제7국 제5과 부감사관
朴珍院	94년 경명대 경영학	국책사업 제2과 부감사관
金榮德	89년 자연대 미생물학	환경문화 제1과 부감사관
張鍾泰	85년 사회대 사회학	환경문화 제2과 부감사관
李尙玄	90년 법대 법학	기획과 부감사관
李允在	92년 경명대 경영학	기획과 부감사관
金榮進	85년 경명대 경영학	결산과 부감사관
金榮德	84년 사회대 국제경제학	국제과 부감사관
尹重模	90년 법대 사법학	법무과 부감사관
任榮模	90년 경명대 경영학	법무과 부감사관
金榮德	00년 농성대 임산공학	총무과 감사주사보
鄭鍾泰	90년 경명대 경영학	공보 부감사관
金子映	97년 간호대 간호학	감사교육원 감사주사보
南賢伯	91년 경명대 경영학	감사교육원 감사주사보
朴春容	83년 자연대 지질과학	부감사관(국내 파견)
梁榮德	87년 경명대 경영학	부감사관(해외 파견)
朴幸雨	91년 경명대 경영학	부감사관(해외 파견)
鄭鍾泰	99년 사회대 경제학	부감사관(유직)

*현황이 파악된 동문 일부만 게재합니다. 이점 양해바랍니다.

회비납부 술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理事: 2003년 5월 19일~2003년 7월 20일 · 一般: 2003년 5월 19일~2003년 7월 21일〉

평생회비

- ▲강석익(89년 農大卒)=20만원
- ▲권무일(68년 文理大卒)=20만원
- ▲권지혜(99년 工大卒)=20만원
- ▲김철호(66년 農大卒)=20만원
- ▲김준길(62년 工大卒)=20만원
- ▲류성언(84년 自然大卒)=20만원
- ▲박길선(83년 醫大卒)=20만원
- ▲상봉주(75년 工大卒)=20만원
- ▲신란식(55년 師大卒)=20만원
- ▲신원식(61년 法大卒)=50만원
- ▲안지득(80년 工大卒)=20만원
- ▲이미경(86년 農大卒)=20만원
- ▲이복환(77년 師大卒)=20만원
- ▲이인기(66년 文理大卒)=20만원
- ▲장영복(66년 自然大卒)=20만원
- ▲조장수(86년 經醫大卒)=20만원

이 사

◇사회과학대학

▲이종근

◇간호대학

▲김매자 ▲박관순 ▲안은숙

◇경영대학

▲김문수 ▲김선규 ▲박정래 ▲허인섭

◇공과대학

▲강병연 ▲김규섭 ▲김덕재 ▲김병길 ▲김상희 ▲김선동 ▲김태경 ▲김영수 ▲김인상 ▲김진민 ▲김정식 ▲문석형

▲문정석 ▲박근용 ▲박동석 ▲박성철 ▲박재승 ▲박태권 ▲박수일 ▲백영하 ▲손민영 ▲신동수 ▲신지영 ▲심병필 ▲심민보 ▲심일보 ▲심장성 ▲안동원 ▲안재휴 ▲안승택 ▲오승환 ▲유태성 ▲윤봉순 ▲이교일 ▲이준철 ▲이종현 ▲이범주 ▲이범호 ▲이성철 ▲이승일 ▲이우균 ▲이정국 ▲이정복 ▲이호현 ▲장동욱 ▲정동진 ▲정상구 ▲조양래 ▲차경도 ▲차정서 ▲최승환 ▲최원갑 ▲한정수 ▲홍영희 ▲홍의석

◇농업생명과학대학

▲김상국 ▲김성원 ▲문태화 ▲박래경 ▲박정수 ▲심상원 ▲유 창 ▲유배근 ▲유원철 ▲유일웅 ▲이규재 ▲이돈규 ▲이수우 ▲이경호 ▲이훈호 ▲장규섭 ▲최경화

◇문리과학대학

▲강현득 ▲곽원호 ▲김규섭 ▲김민영 ▲김상복 ▲김우현 ▲남상진 ▲박국옥 ▲손석일 ▲오영영 ▲유양수 ▲윤 석 ▲윤석현 ▲이재이 ▲이기원 ▲이범기 ▲이원종 ▲이준희 ▲정희익 ▲정문모 ▲조성국 ▲조준호 ▲최정호 ▲허은욱 ▲홍남표

◇미술대학

▲민현홍 ▲백병기 ▲성기정 ▲조성애

◇법과대학

▲강만수 ▲강준겸 ▲강우현 ▲권동열 ▲김대영 ▲김석영 ▲김세권 ▲김영수 ▲김영술 ▲김용균 ▲김영철 ▲김준규 ▲김준호 ▲김진영 ▲김창복 ▲김철배 ▲김효원 ▲복요상 ▲박경순 ▲박상선 ▲박영준 ▲박용원 ▲박장우 ▲박재경 ▲박종국 ▲배재욱 ▲변재승 ▲서삼영 ▲서상희 ▲손지열 ▲송재현 ▲신원식 ▲심연택 ▲양희종 ▲여장조 ▲오영권 ▲오윤덕 ▲유근영 ▲유홍종 ▲이대영 ▲이용복 ▲이재철 ▲이종경 ▲이지수 ▲이정원 ▲이희정 ▲임서범 ▲정봉호 ▲전수원 ▲정재형 ▲정해주 ▲정현국 ▲재차형 ▲조규환 ▲최무형 ▲최경건 ▲하종선 ▲한경수 ▲황상규 ▲황이연

◇사법대학

▲강규석 ▲고준식 ▲김기갑 ▲김재운 ▲김현규 ▲김태홍 ▲나도승 ▲박복상 ▲박익두 ▲박종재 ▲유덕준 ▲이선준 ▲이승원 ▲이우택 ▲이재룡 ▲이종욱 ▲임재훈 ▲전성덕 ▲정복성 ▲조규섭 ▲조흥복 ▲황성욱

◇상과대학

▲고경식 ▲공경원 ▲권오학 ▲김병용 ▲김민우 ▲김병준 ▲김병호 ▲김성기 ▲김용진 ▲김진범 ▲김정우 ▲김태동 ▲문영도 ▲박 철 ▲박민욱 ▲박성석 ▲박영대 ▲박종근 ▲박찬국 ▲서성식 ▲서정원 ▲소진관 ▲손기혁 ▲신대룡

▲안용식 ▲오강욱 ▲오대균 ▲유병무 ▲윤복현 ▲이기용 ▲이길우 ▲이상선 ▲이서재 ▲이용진 ▲이일훈 ▲이정진 ▲이주찬 ▲이진방 ▲이필곤 ▲이현태 ▲임동승 ▲양원원 ▲정희경 ▲조창제 ▲지현규 ▲채부영 ▲최명규 ▲최성태 ▲허남진 ▲황문환

◇생활과학대학

▲김주자 ▲박경화 ▲박복순 ▲윤서인 ▲윤승균 ▲이의숙

◇수의과대학

▲김오섭 ▲김인호 ▲나기식 ▲박기복 ▲석세조 ▲송남훈 ▲이강남 ▲이도필 ▲조상래

◇약학대학

▲김진수 ▲김한길 ▲나명철 ▲박사봉 ▲신동용 ▲이상섭 ▲주영연 ▲채영주 ▲허 상

◇음악대학

▲김병원 ▲윤미용 ▲이종국

◇의과대학

▲강신일 ▲권이혁 ▲김근식 ▲김귀용 ▲김재원 ▲김홍규 ▲맹국영 ▲박동건 ▲박지홍 ▲서유연 ▲서재하 ▲송기섭 ▲송영철 ▲신현정 ▲안상태 ▲양승범 ▲유병호 ▲유재화 ▲유영래 ▲이 영 ▲이규동 ▲이성만 ▲이환철 ▲장돈식 ▲정규범 ▲조강화 ▲조경환 ▲차정인 ▲추연명 ▲하민희

◇치과대학

▲권종진 ▲김상욱 ▲김신원 ▲김세진 ▲김영구 ▲김용운 ▲김원규 ▲김원규 ▲박옥련 ▲박태수 ▲변영남 ▲손관용 ▲양재호 ▲이규철 ▲이창철 ▲이수배 ▲이승환 ▲이영대 ▲이원철 ▲정현주 ▲최옥환 ▲허준규

◇대학원

▲변정환 ▲이노종 ▲정문기

◇경영대학원

▲김호봉 ▲권도진

◇보건대학원

▲이시영 ▲조경종 ▲최상근

◇행정대학원

▲권기성 ▲권용용 ▲김권수 ▲김두성 ▲김용길 ▲김익형 ▲김주삼 ▲신승우 ▲권경병

◇환경대학원

▲박형석

일 반

◇인문대학

▲김형근 ▲경영화 ▲구문환 ▲김규하 ▲김대환 ▲김경환 ▲김병석 ▲김종하 ▲박혜일 ▲송기국 ▲양원철 ▲오경택 ▲윤상범 ▲이승원 ▲정병원 ▲정원섭 ▲조재범 ▲진준현 ▲최남자 ▲최승환 ▲최종성 ▲현무환 ▲황성태

▲강형벽▲▲권경자▲▲김교식▲
▲김덕용▲▲김성현▲▲김수미▲
▲김정숙▲▲김정희▲▲김준지▲
▲김현영▲▲김홍규▲▲남혜순▲
▲문점영▲▲문기선▲▲민경갑▲
▲박근영▲▲박상민▲▲박요원▲
▲박재웅▲▲박재호▲▲서명선▲
▲서현우▲▲송복희▲▲우상호▲
▲유영선▲▲이성욱▲▲이양희▲

▲이영진⑩ ▲임성진⑩ ▲임수자⑩
▲정재일⑩ ▲정경진⑩ ▲정재영⑩
▲조경숙⑩ ▲조희영⑩ ▲최이자⑩
▲한영숙⑩ ▲정민희⑩ ▲연수자⑩

◇법과대학

▲김문원⑩ ▲강성목⑩ ▲경우근⑩
▲박영진⑩ ▲곽유지⑩ ▲권오택⑩
▲권형준⑩ ▲김규병⑩ ▲김기경⑩
▲김기영⑩ ▲김길환⑩ ▲김남수⑩
▲김득원⑩ ▲김동훈⑩ ▲김복지⑩
▲김삼근⑩ ▲김서우⑩ ▲김서희⑩
▲김영호⑩ ▲김정용⑩ ▲김익식⑩
▲김재훈⑩ ▲김지욱⑩ ▲박영철⑩
▲김철환⑩ ▲김대성⑩ ▲김한수⑩
▲김명두⑩ ▲나대진⑩ ▲노창동⑩
▲노재철⑩ ▲문정원⑩ ▲무택상⑩
▲민식기⑩ ▲박노문⑩ ▲박석주⑩
▲박순용⑩ ▲박일룡⑩ ▲박재문⑩
▲박지현⑩ ▲박학수⑩ ▲박영철⑩
▲손선규⑩ ▲송재대⑩ ▲송병서⑩
▲신용환⑩ ▲심상수⑩ ▲안재홍⑩
▲오정환⑩ ▲오정규⑩ ▲유영환⑩
▲유순현⑩ ▲유지동⑩ ▲유영철⑩
▲윤성복⑩ ▲윤의선⑩ ▲윤만중⑩
▲이기현⑩ ▲이동식⑩ ▲이명기⑩
▲이문호⑩ ▲이민수⑩ ▲이병준⑩
▲이순우⑩ ▲이외수⑩ ▲이원배⑩
▲이인상⑩ ▲이지권⑩ ▲이준상⑩
▲임상규⑩ ▲임정환⑩ ▲전원배⑩
▲전재기⑩ ▲정 열⑩ ▲정선명⑩
▲정종현⑩ ▲정지태⑩ ▲조대환⑩
▲조재현⑩ ▲조모경⑩ ▲조상근⑩
▲조재현⑩ ▲조태근⑩ ▲조해성⑩
▲조현수⑩ ▲주한길⑩ ▲차한성⑩
▲최 철⑩ ▲최병무⑩ ▲최종기⑩
▲최달호⑩ ▲최정호⑩ ▲한 정⑩
▲한대윤⑩ ▲한용기⑩ ▲한영건⑩
▲홍승재⑩ ▲황일호⑩

◇사범대학

▲김철수⑩ ▲신의범⑩ ▲윤덕성⑩
▲고국순⑩ ▲김병자⑩ ▲박 재⑩
▲백남수⑩ ▲유영숙⑩ ▲임백희⑩
▲최정숙⑩ ▲김은숙⑩ ▲김길중⑩
▲강기우⑩ ▲김성진⑩ ▲김정현⑩
▲김진식⑩ ▲박영서⑩ ▲서순중⑩
▲성경재⑩ ▲신백근⑩ ▲삼숙주⑩
▲유영선⑩ ▲유재석⑩ ▲이재훈⑩
▲이종진⑩ ▲이태원⑩ ▲이호상⑩
▲이희철⑩ ▲조양재⑩ ▲전영일⑩
▲최수성⑩ ▲김 인⑩ ▲김경주⑩
▲김경희⑩ ▲김택민⑩ ▲김동희⑩
▲김병수⑩ ▲김미숙⑩ ▲김진주⑩
▲김성곤⑩ ▲김성태⑩ ▲김승재⑩
▲김영숙⑩ ▲김정순⑩ ▲김정환⑩
▲김홍희⑩ ▲나병삼⑩ ▲남상인⑩
▲노병환⑩ ▲문일성⑩ ▲민승규⑩
▲박대식⑩ ▲박보현⑩ ▲박수건⑩
▲박이진⑩ ▲박정남⑩ ▲박장자⑩
▲박태희⑩ ▲반영환⑩ ▲박남준⑩
▲변희준⑩ ▲서대현⑩ ▲성백영⑩
▲송복주⑩ ▲송장성⑩ ▲송정삼⑩
▲신각범⑩ ▲신영대⑩ ▲신홍근⑩
▲안창섭⑩ ▲엄영주⑩ ▲오성환⑩
▲오세정⑩ ▲유문상⑩ ▲윤경태⑩
▲윤재운⑩ ▲윤희숙⑩ ▲이규범⑩
▲이귀준⑩ ▲이기원⑩ ▲이기환⑩
▲이달호⑩ ▲이병환⑩ ▲이보석⑩
▲이상규⑩ ▲이수지⑩ ▲이영로⑩
▲이영민⑩ ▲이윤희⑩ ▲이재희⑩
▲이정진⑩ ▲이정익⑩ ▲이정호⑩
▲이종석⑩ ▲이진환⑩ ▲이진희⑩
▲임종순⑩ ▲장동우⑩ ▲장동택⑩
▲전병수⑩ ▲전병일⑩ ▲전신재⑩

▲정상박⑩ ▲정성영⑩ ▲정의포⑩
▲정진대⑩ ▲정택진⑩ ▲조선희⑩
▲조형우⑩ ▲주기성⑩ ▲주도식⑩
▲주용규⑩ ▲지윤호⑩ ▲최계숙⑩
▲최길순⑩ ▲최병선⑩ ▲최익구⑩
▲최정현⑩ ▲추건이⑩ ▲하연숙⑩
▲함정규⑩ ▲형남규⑩ ▲홍덕준⑩
▲홍진일⑩

◇상과대학

▲김동구⑩ ▲강상기⑩ ▲고명환⑩
▲권기봉⑩ ▲권영수⑩ ▲권해동⑩
▲김광준⑩ ▲김기준⑩ ▲김상진⑩
▲김성철⑩ ▲김정식⑩ ▲김성우⑩
▲김중수⑩ ▲김진호⑩ ▲김정부⑩
▲김홍국⑩ ▲남영태⑩ ▲문성택⑩
▲박남규⑩ ▲박은진⑩ ▲박연도⑩
▲박원규⑩ ▲박정진⑩ ▲박찬수⑩
▲박용서⑩ ▲박한재⑩ ▲성백규⑩
▲송성철⑩ ▲신문철⑩ ▲신홍우⑩
▲삼남진⑩ ▲안기봉⑩ ▲안해자⑩
▲영성도⑩ ▲오경민⑩ ▲오성봉⑩
▲오정환⑩ ▲유권성⑩ ▲윤병상⑩
▲윤상규⑩ ▲이만용⑩ ▲이성위⑩
▲이수희⑩ ▲이은석⑩ ▲이영중⑩
▲이은복⑩ ▲이인희⑩ ▲이준원⑩
▲이태준⑩ ▲이한희⑩ ▲장기남⑩
▲장석정⑩ ▲전종모⑩ ▲정덕희⑩
▲정세진⑩ ▲정정태⑩ ▲정대중⑩
▲정종교⑩ ▲조상호⑩ ▲조성중⑩
▲조현영⑩ ▲전영수⑩ ▲차대근⑩
▲채규대⑩ ▲최 광⑩ ▲최규이⑩
▲최도성⑩ ▲최준환⑩ ▲한상현⑩
▲한용광⑩ ▲황희현⑩

◇생물과대학

▲강정호⑩ ▲고희정⑩ ▲김남미⑩
▲김성진⑩ ▲김은희⑩ ▲류국영⑩
▲신의희⑩ ▲조종란⑩ ▲이복록⑩
▲임서영⑩ ▲김정자⑩ ▲지금수⑩
▲최정이⑩ ▲한인옥⑩ ▲한조경⑩

◇수의과대학

▲김부현⑩ ▲강석주⑩ ▲고의식⑩
▲권병국⑩ ▲권태룡⑩ ▲김대중⑩
▲김정용⑩ ▲김주성⑩ ▲김정수⑩
▲명수남⑩ ▲박근하⑩ ▲박원원⑩
▲박호인⑩ ▲박희준⑩ ▲안병욱⑩
▲안재홍⑩ ▲유병문⑩ ▲윤대길⑩
▲이상인⑩ ▲정성희⑩ ▲정진희⑩
▲조종기⑩ ▲함혜영⑩ ▲홍성민⑩

◇약학대학

▲강 서⑩ ▲강상식⑩ ▲김용수⑩
▲강기영⑩ ▲강진희⑩ ▲김현숙⑩
▲문창기⑩ ▲박경배⑩ ▲박종호⑩
▲배영일⑩ ▲배옥남⑩ ▲배용래⑩
▲빈민호⑩ ▲서정수⑩ ▲손현이⑩
▲신현숙⑩ ▲신국현⑩ ▲심규정⑩
▲유한호⑩ ▲윤재숙⑩ ▲이문희⑩
▲이숙연⑩ ▲이재숙⑩ ▲전우희⑩
▲전정수⑩ ▲전하경⑩ ▲장재희⑩
▲조마정⑩ ▲조용중⑩ ▲조용훈⑩
▲최리나⑩ ▲최현주⑩ ▲전승범⑩
▲한승영⑩ ▲황광진⑩ ▲황영욱⑩

◇음악대학

▲김정수⑩ ▲고은자⑩ ▲고원주⑩
▲김나영⑩ ▲김진환⑩ ▲김서란⑩
▲김정수⑩ ▲김지훈⑩ ▲박수진⑩
▲박지선⑩ ▲박은경⑩ ▲사계순⑩
▲서한범⑩ ▲송병익⑩ ▲송영욱⑩
▲오진희⑩ ▲윤기숙⑩ ▲이방숙⑩
▲이영수⑩ ▲이오규⑩ ▲이옥희⑩
▲이은영⑩ ▲이인희⑩ ▲이주경⑩

▲이준성⑩ ▲이관준⑩ ▲전상직⑩
▲정수인⑩ ▲조병희⑩ ▲조문자⑩
▲차경권⑩ ▲최문진⑩ ▲최희연⑩
▲한민숙⑩ ▲한정영⑩ ▲홍영자⑩
▲황광섭⑩ ▲황준연⑩ ▲황병정⑩

◇의과대학

▲강병수⑩ ▲강수경⑩ ▲강철직⑩
▲권병기⑩ ▲기만덕⑩ ▲김경일⑩
▲김기진⑩ ▲김동현⑩ ▲김복석⑩
▲김승철⑩ ▲김영태⑩ ▲문정주⑩
▲박선재⑩ ▲박영일⑩ ▲박은호⑩
▲박재교⑩ ▲박종희⑩ ▲서교일⑩
▲서철원⑩ ▲송영욱⑩ ▲신미자⑩
▲신준우⑩ ▲심용식⑩ ▲안영민⑩
▲안철수⑩ ▲왕영준⑩ ▲왕재호⑩
▲유연호⑩ ▲유경진⑩ ▲유구삼⑩
▲윤정환⑩ ▲이무송⑩ ▲이위기⑩
▲이원기⑩ ▲이인영⑩ ▲이재식⑩
▲이진희⑩ ▲이희원⑩ ▲임원준⑩
▲임홍정⑩ ▲임종현⑩ ▲장철순⑩
▲전종희⑩ ▲조미경⑩ ▲차민준⑩
▲최서준⑩ ▲최정숙⑩ ▲한덕준⑩
▲홍성도⑩ ▲홍태중⑩ ▲황성남⑩
▲황철홍⑩

◇치과대학

▲강병기⑩ ▲강신영⑩ ▲강우근⑩
▲고백희⑩ ▲고영식⑩ ▲김건모⑩
▲김기남⑩ ▲김상현⑩ ▲김성철⑩
▲김서연⑩ ▲김영진⑩ ▲김영주⑩
▲김영준⑩ ▲김용준⑩ ▲김원희⑩
▲김중문⑩ ▲박근구⑩ ▲김희진⑩
▲민정미⑩ ▲박진배⑩ ▲박경준⑩
▲박종만⑩ ▲변기정⑩ ▲설창환⑩
▲장무도⑩ ▲양문삼⑩ ▲원문정⑩
▲이문환⑩ ▲이성호⑩ ▲이정호⑩
▲이종환⑩ ▲이주성⑩ ▲이종희⑩
▲이창용⑩ ▲정용수⑩ ▲정병구⑩
▲조창중⑩ ▲최재자⑩ ▲최종호⑩
▲추정규⑩ ▲한병소⑩ ▲황병재⑩

◇대학원

▲김기희⑩ ▲김성래⑩ ▲김연석⑩
▲김우식⑩ ▲박용희⑩ ▲손병환⑩
▲김정범⑩ ▲유정희⑩ ▲이시운⑩
▲이문호⑩ ▲이재봉⑩ ▲임동규⑩
▲정복동⑩ ▲조서준⑩ ▲전선주⑩
▲최현석⑩ ▲하정규⑩ ▲홍성훈⑩

◇경영대학원

▲박준석⑩ ▲양희석⑩ ▲이강선⑩
▲이기환⑩

◇교육대학원

▲오경준⑩ ▲정병관⑩ ▲정철환⑩

◇보건대학원

▲기윤호⑩ ▲김정숙⑩ ▲김기환⑩
▲김학영⑩ ▲오정수⑩ ▲윤기민⑩
▲이경연⑩ ▲이영진⑩ ▲임완호⑩
▲천성수⑩ ▲최해민⑩

◇사범대학원

▲박종택⑩ ▲송정호⑩

◇행정대학원

▲김경준⑩ ▲김광욱⑩ ▲김길조⑩
▲김순성⑩ ▲김승준⑩ ▲김성식⑩
▲김우석⑩ ▲김종성⑩ ▲서일수⑩
▲소준영⑩ ▲이영태⑩ ▲진익철⑩
▲최병기⑩

◇환경대학원

▲박준대⑩ ▲송장복⑩ ▲윤용희⑩

▲윤종식⑩ ▲윤하일⑩ ▲이광희⑩
▲이규환⑩ ▲이상훈⑩ ▲조덕호⑩

◇최고경영자과정

▲강성교⑩ ▲강창구⑩ ▲강광석⑩
▲김병두⑩ ▲김선하⑩ ▲강성무⑩
▲김정조⑩ ▲김일기⑩ ▲김재욱⑩
▲김정규⑩ ▲김정서⑩ ▲김충현⑩
▲김치근⑩ ▲김학관⑩ ▲김해관⑩
▲노기호⑩ ▲문만수⑩ ▲민정관⑩
▲박경수⑩ ▲박석희⑩ ▲박성동⑩
▲박대성⑩ ▲박재윤⑩ ▲박정수⑩
▲박종민⑩ ▲박진수⑩ ▲박정현⑩
▲박재우⑩ ▲백석우⑩ ▲서일규⑩
▲손성태⑩ ▲손성운⑩ ▲송춘달⑩
▲신종규⑩ ▲오동민⑩ ▲오희택⑩
▲원상준⑩ ▲유병환⑩ ▲유국현⑩
▲윤동민⑩ ▲윤재민⑩ ▲윤준수⑩
▲이대성⑩ ▲이병대⑩ ▲이종훈⑩
▲이상근⑩ ▲이시훈⑩ ▲이영환⑩
▲이태교⑩ ▲이현식⑩ ▲장동국⑩
▲조금재⑩ ▲조상영⑩ ▲조원재⑩
▲최서준⑩ ▲최종숙⑩ ▲최우영⑩
▲최광욱⑩ ▲한원표⑩ ▲황태호⑩

◇최고산업전과과정

▲김경숙⑩ ▲김기민⑩ ▲김성근⑩
▲김우식⑩ ▲김민인⑩ ▲김현우⑩
▲남근식⑩ ▲마재관⑩ ▲박원수⑩
▲손현숙⑩ ▲윤경환⑩ ▲윤재호⑩
▲이명래⑩ ▲이상훈⑩ ▲이성원⑩
▲이종민⑩ ▲이종환⑩ ▲이태희⑩
▲정성범⑩ ▲정태현⑩ ▲조한남⑩
▲차동성⑩ ▲최성남⑩ ▲최정진⑩
▲한승욱⑩ ▲한용삼⑩ ▲허규철⑩
▲현수기⑩

◇국가정책과정

▲가경노⑩ ▲김경래⑩ ▲김기영⑩
▲김동원⑩ ▲김정환⑩ ▲김종환⑩
▲김철우⑩ ▲김철호⑩ ▲문동명⑩
▲민병식⑩ ▲박정순⑩ ▲박재중⑩
▲박정기⑩ ▲신태희⑩ ▲양장식⑩
▲오승재⑩ ▲오정숙⑩ ▲이교용⑩
▲이동성⑩ ▲이보우⑩ ▲이종민⑩
▲전윤수⑩ ▲정문기⑩ ▲조명민⑩
▲조주태⑩

◇고급금융과정

▲권대진⑩ ▲김광태⑩ ▲김인태⑩
▲김정경⑩ ▲박상기⑩ ▲박정국⑩
▲송영규⑩ ▲이재용⑩ ▲이명근⑩
▲이영호⑩ ▲임대석⑩ ▲조현석⑩
▲황성관⑩

◇도시환경교역정책과정

▲김수근⑩ ▲이영송⑩ ▲이정수⑩
▲이춘섭⑩ ▲전택복⑩ ▲주원갑⑩
▲한상용⑩

◇가정간호수습과정

▲최수일⑩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강영호⑩ ▲박문기⑩ ▲박원진⑩
▲양인성⑩ ▲양화승⑩ ▲이재택⑩
▲이현주⑩ ▲전관석⑩ ▲주재원⑩
▲최용성⑩ ▲하영민⑩ ▲하정호⑩

◇보건의료정책최고관리자과정

▲강보영⑩ ▲권복국⑩ ▲김동근⑩
▲정판환⑩ ▲홍성희⑩

◇해양정책최고과정

▲금홍일⑩ ▲이선호⑩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김문수⑩ ▲김기민⑩ ▲김종원⑩
▲서인호⑩ ▲유진국⑩ ▲윤재영⑩
▲이인기⑩ ▲임진관⑩ ▲정병재⑩
▲조규원⑩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

▲석병수⑩ ▲최박문⑩

분 담 금

◆인도네시아 지부 (500 \$)

월 계 : 56,884,000원
총 계 : 357,671,404원
+ 13,500 \$

PDF & E-book Design HANWOORISUM

“동창회 국민패스카드, 지금 신청하세요”

(2003년 3월~7월 발급 회원 명단)

개 인

◇人文大學

▲주종득⑩

◇社會科學大學

▲배철호⑩ ▲이도훈⑩

◇工科大學

▲김영준⑩ ▲박우람⑩ ▲황아룡⑩

◇農業生命科學大學

▲정진범⑩

◇美術大學

▲임종환⑩

◇法科大學

▲노재관⑩

◇師範大學

▲김사관⑩ ▲김재식⑩

◇대학원

▲류성호⑩ ▲최종욱⑩

◇최고산업전과과정

▲김종영⑩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김성대⑩



동창회보를 읽고

특지장학금 소식 더 많이 실었으면

全恒宙(71년 음대卒) 안양대 음악대학 교수

동창회보의 구성구석을 보면 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특지장학금 소식이다. 나에게도 큰 감동을 준 소박한 사상이 하나 있다. 「한구석 밝히기 정신」이다.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一隣生생님이 계신데, 그는 50년 이상을 한결같이 조국의 완결과 행복을 위해 걱정하셨다.

우리 나라가 건강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는 산업, 금융, 학문,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발달도 중요하지만,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할 부분은 각자의 구석이라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처해 있는 그곳(한구석)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최선을 거둔다면 작게는 내 행복이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보는 것이다. 소박한 한구석이다.

동창회보의 구성구석은 매우 중요하다. 조그마한 가십거리도 흥미로운데 특히 아름다운 미덕의 이야기들은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동창회

보 제306호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었다. 장학금에 대한 기사들이었다. 정말 줄 수 있는 행복과 받는 즐거움이 어우러져 아름다움의 기

“

선배들의 크고 작은
정성을 모아 후배사람을
심천하는 따뜻한 행사가
돋보였다

”

쁨은 두 배가 된 듯 싶다.

특히 총동창회가 주축이 되어 선배들의 크고 작은 정성을 모아 후배사람을 심천하는 따뜻한 행사가 매우 돋보였다. 장학금이 액수로 평가될 일은 아닌 듯 싶다. 젊은 후학들의 학업열과 희망

그리고 도전정신에 용기를 주는 불씨가 된다면 그 효과는 무궁하다 할 것이다.

특지장학금은 더욱 돋보였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의 특지장학금이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한다. 아주 작은 부분의 기사들이지만 그 따뜻한 아름다움은 영원할 것이다. 눈물 젖은 뺨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 것이며, 아기를 낳아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해산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특지장학금은 비록 그 규모나 숫자가 적다고는 하나 앞으로 소박한 한구석의 특지장학금을 늘린다면 그것은 바다 같으리라 여겨진다. 반딧불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에 모교가 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견인차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특지장학금의 중요성이 더욱 일깨워져야 한다고 본다. 국가가 다하지 못하는 교육투자기능을 대신하고 또 부의 사회환원 및 기부문화 활성화 촉진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다.

총동창회 지포가 참여·협력·영광이듯



이 많은 동문들이 특지장학금에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함께 얻는 영광이 조국의 미래를 밝혀주고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심어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동창회보에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들이 많이 기사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비록 작은 구석이라도 아름다운 기사는 오래도록 우리들의 마음 끝에 남아 있기에...

「一人百歩不如百人一步: 한 사람이 백 걸음을 가는 것보다 백 사람이 한 걸음씩 가는 것이 낫다」

유머있는 내용으로 긴장 풀어주길

李珍魯(85년 社會大卒)영산대 매스컴학부 교수



매월 발행되는 동창회보를 읽는 시간은 오랜만에 서울대인보로서의 정체감을 느끼는 순간이다.

1980년대는 우리 사회가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제한된 자유로 인해 많은 갈등과 회색을 겪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대학생활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적지 않은 동창들이 학업을 강제로 중단 당하거나, 때로는 성명을 던지는 희생이 거듭된 후에야 지금 모두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초석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동창들이 대부분 학업을 어렵사리 마치고, 사회 각계에서 각자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힘들게 보낸 대학시절에 알짜배기 요소가 숨어있음을 알게 된다.

나는 서울대가 제공한 가장 중요한 혜택이 우수한 동문들과 생활하는 가운데 얻을 수 있었던 정보와 재미,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먼저 여기서 정보는 학과와 동아리의 친구, 선후배와 더불어 사회인생을 고민하고 자아에 대해 성찰하는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분석력과 개인의 현학적 대응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능력이 쌓이는 것은 단순히 많은 책을 읽기만 해도 가능할지 모르나 그것이 다음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허심탄회한 토론을 거쳐야 하는데, 많은 모임과 이어진 뒤돌아 서의 토론은 분명 인식의 물을 확장하고, 전문성을 갖추는데 밑거름이 됐다.

다음에 재미는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하게 보일 수 있는 당시의 정보 측면에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도록 이끄는 남반적 요소이다. 예컨대 감성, 남이심, 청취 등의 아름다운 산과 계곡, 호수 등지를 찾아서 노래와 스포츠를 통해 연대감을 형성하는 즐거움을 누리거나, 봄과 가을에 열리는 축제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에 참여하며 정서를 순화하고, 심미안을 가꾸려는 것 등이 해당된다.

서울대 동창회보는 학교를 졸업한지

10년, 20년을 넘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대학에서 얻었던 다양한 정보와 재미를 주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만남의 장이다. 가장 최근의 306호(9월 15일 발행)를 읽었지만만 해도 좋은 정보가 가득차 있음을 쉽게 확인된다. 「트러나무 광장」에서는 중년 동창들에게 MSN 메신

“

인생의 패이소스를
남기는 일하나 유머를
소개하면 기다림이
더 할 것이다

”

저의 사용을 권하고, 「동문칼럼」에서는 앞으로 대륙봉이 영토 확장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또한 「동문기자의 취재수첩」에서는 동아일보에 연재된 「정치인 참회록」 시리즈의 배경 및 진행 과정과 박찬호의 전성기 시절 국내기자들이 배대 당했던 경험을 편안

한 본래로 전달해 준다. 이밖에도 늘 빠지지 않는 건강 정보는 「중이염을 방지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경고를 달해 주, 소홀히 하기 쉬운 건강 관리를 재촉한다.

동창회보에는 또한 재미도 담겨 있다. 「추억의 참」에 담겨 있는 내용에는 지금쯤 사회적으로 유명한 주요 인사들의 학창시절 장편이 세월을 뛰어넘어 곳곳에 소개되어 있으므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지나간 순간을 되돌아보는 즐거움을 안겨준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량의 봉사활동, 장학금 전달 소식과 인터뷰 기사도: 서울대인들에게 요구되는 「노블리주 오블리제」가 공명력을 벗어나는 듯해 안도감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창회보에 추가로 요구되는 내용이 있다면 정보의 충실성과 재미의 강도를 높여달라는 점이다. 정보의 경우 성공한 이들이 과거를 추억하는 내용과 더불어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이들의 고민과 좌절이 곁들여진다면 생동감이 더해질 것이다. 그리고 재미에 있어서도 온건한 재미와 더불어 인생의 패이소스(pathos)를 남기는 일화나 또는 유머를 소개한다면 카타르시스(catharsis)에 대한 기다림이 더해질 것이다.